

12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681.82 (-25.14)	860.47 (+2.37)
금리 (연이자율)	환율 (원/달러)
3.403 (-0.063)	1375.40 (+11.30)

'경영난' 빅5병원
의료기기 업체에
일방적 가격인하 요구
02



비상대응반 가동... 환율·유가 요동치면 경제 시계제로

'중동사태' 긴급 경제안보회의
국내외 금융시장 24시간 모니터링
리스크요인 점검·신속 대비책 운용
원자재 수급·공급망 등 분석 관리
재외국민·선박 안전대책 등 주문

정부가 금융시장 동향 및 원자재수급 점검을 위한 비상대응반을 매일 가동하는 등 전쟁위험 중동사태에 초긴장 태세에 들어갔다. 14일(현지시간)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은 국내 휘발유 가격이 가파르게 반등하고 원·달러 환율 또한 치솟던 상황에 단행돼, 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재외국민 안전대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란-이스라엘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다. 이와 별도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간부들이 참석하는 비상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이날 오전 열었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금융시장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법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할 것"을 당부했다. 또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재외국민 안전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

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기재부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매일 가동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의 보복 공습 등 중동위기가 조조로 향후 사태 전개 양상 등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커질 수 있다"며 참석자들에게 철저한 상황 관리를 당부했다. 또 "대의 충격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괴리돼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정부의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실물경제 동향 점검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적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자재 수급·가격 모니터링 강화와 실물경제 영향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휘발유 값은 최근 5개월 새 최고 수준까지 뛰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소매가격은 전일 대비 1당 1.79원 오른 1687.17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13일(1691.14원) 이후 가장 비싸다. 전 저점인 1562.47원(올해 1월20일)에 비해서는 3개월 만에 무려 7.98%(124.70원) 올랐다.

국제유가도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 북해산브렌트유와 중동두바이유선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물은 지난 12일(현지시간) 각각 90.45달러, 90.2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의 경우, 올해 1월만 해도 배럴당 75~82달러 선에서 거래된 바 있다.

앞서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 알뜰주유소 40개를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금명간 유류세 인하조치의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선을 넘어 보고 있다. 지난 12일 1375.4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증가 기준으로 지난 2022년 11월10일 이후 1년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특히 최근 6거래일 만에 25원 넘게 올랐다.

/세종=김연세, 서예진 기자 kys@metroseoul.co.kr

'새로운 금' '꿈의 10만 달러' 비트코인 폭등 기대감 여전

반감기 D-4

과거 반감기 후 가파른 상승 보여
올 연말 '강세 사이클 정점' 예상

가상화폐 시장의 최대 호재로 꼽히고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격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채굴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에선 비트코인의 10만달러 돌파를 예상하고 있다. 반감기는 지난 1월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함께 호재로 꼽힌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수요 증가를, 반감기는 공급 충격을 이끈다는 분석이다. 매도 압력 없이 수요가 꾸준한 상태에서 공급이 준다면 가격 상승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14일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6만7700달러대에 거래되면서 지난주(7만달러) 대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비트코인 하락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기준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투자자들이 차익매물을 쏟아낸 것이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향후 반감기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전환할 것이라 기대감이 높다.

비트코인은 전체 유통량이 2100만개

선에서 제한되도록 설계돼 있다. 현재까지 1900만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채굴됐고, 모든 채굴이 끝나는 시점은 2140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감기는 약 4년을 주기로 채굴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반감기는 한국시간으로 오는 19일 새벽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채굴 보상은 2009년 첫 출시 당시 비트코인 50개였지만, 2012년 11월(채굴보상 1블록당 25비트코인), 2016년 7월(12.5비트코인), 2020년 5월(6.25비트코인) 세 차례 반감기를 거쳐 오면서 확연히 줄어들었다. 오는 19일 반감기를 거치고 나면 3.125개까지 떨어지게 된다.

과거 세 번의 반감기(2012년, 2016년, 2020년)에서는 반감기 후 가파른 상승폭을 보였다. 지난 2012년 11월 당시 10달러에 불과했던 비트코인은 6개월 후인 2013년 5월 148달러까지 상승하면서 무려 1380% 폭등했다.

두 번째 반감기였던 2016년 7월에는 650달러를 기록, 이후 6개월 뒤 1100달러를 기록하면서 70% 상승했다. 이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17년 12월 1만6000달러를 돌파했다.

세 번째 반감기인 2020년 5월에는 8100달러에서 6개월 후 처음으로 1만8000달러 돌파했고, 3개월 뒤에는 6만1000달러를 기록했다. <4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

'총선 패배' 尹, 총리·참모진 등 쇄신 고심

새 비서실장 발표 시일 걸릴 듯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 후 차기 총리와 3기 대통령실 참모 인선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새 비서실장 발표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또는 금주 초에 새 비서실장을 인선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이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4·10 총선이 끝난 지난 1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및 실장·수석급 전원이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은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번 선거는 모두 대통령의 그동안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해 왔다"고 설명했다.

총선 패배의 책임을 느끼고 인적 쇄신을 단행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에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이후 총리,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의 인사 검증과 더불어 여론 동향을 살피고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국정 쇄신과 국민 통합을 상징할 수 있는 인사를 찾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

부 장관, 정진석·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총리로는 주호영·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된다.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인물들의 면면을 볼 때 대통령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지 의문"이라며 "불통의 폭주가 계속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당 내부에서도 "여당이 정부와 대통령실에 종속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 "인적 쇄신만큼 인식의 쇄신이 필요한 것 같다"며 쓴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전당대회나 비대위냐... 총선 참패 국힘, 15~16일 의견수렴
▲ 김기현 "정치개혁 늦춰선 안 돼... 민주·조국당과 달라야" /사진 뉴시스

▲ 여당선인 108명, 16일 한 자리에... 현 총원 참배 후 총회
▲ '비윤' 나경원-안철수, 여 당권 도전 '이해득실' 저울질



▲ 조국 "총선서 재외국민 압도적 지지... 높은 국격 위해 노력" /사진 뉴시스
▲ 중진 간담회·당선인 총회 놓고 여 '의견분분'... 간담회 불참 의원도

'경영난' 빅5병원, 일방적 가격인하 요구에 결제 미뤄 의료기기 업체들 '파산 위기' 직면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지속되면서 의료기기 업체들의 신음이 커지고 있다. 진료 축소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국내 대형병원들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납품 대금 결제를 미루고 있는 탓이다. 중소 업체들의 경우 매출 감소에 이어 가격 인하, 결제 지연 등 삼중고로 파산 위기에 직면한 경우도 생기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위 '빅5'로 불리는 국내 주요 대형병원들이 의료기기 대리점들에 일방적인 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납품 대금 지급 시기를 미루고 있다.

서울성모병원은 최근 의료기기 대리점들을 불러모아 일방적인 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기간을 정해두지 않은 채 가격을 충분히 낮추지 않을 경우 최저가 입찰 경쟁을 붙이겠다는 통보도 이어졌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의료기기 업체들에 2개월만 납품 가격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2개월 후에는 정상 가격으로 돌려주겠다는 전제가 붙었다.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납품 대금 지급 시기를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병원들과의 계약은 대체로 3~5년으로 이루어지는데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병원측에서 가격을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며 "2개월 만으로도 타격이 큰데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될 걸로 예상이 되는 만큼 가격 정상화가 될 수 있을지가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병원들이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의료기기에 쓰이는 소모품들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 의약품보다 상대적으로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의대정원 확대로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아산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최저가 입찰경쟁' 통보 하거나 2개월 간 '납품가격 인하' 요구 결제시기 2개월~6개월 변경도

중소 대리점, 매출 하락 상황 속 가격인하·결제 지연엔 '파산 위기'

업계 관계자는 "의약품의 경우 가격의 임의 변동이 쉽지 않지만 의료기기 소모품들의 경우 5~10% 정도 인하가 가능한 여유가 있다"며 "이 때문에 의료기기 업체들에 요구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 대리점들의 경우 빅5의 병원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대형병원들의 진료와 수술 축소에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인하, 대금 지급 지연까지 이어지면 파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병원들의 가격 인하 요구에 대한 부담은 대리점을 넘어 의료기기 제조업체까지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한 글로벌 기업 관계자는 "가격 인하를 감당하기 어려운

대리점에서 50% 가량을 함께 부담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병원들에 공문을 요구해봐야 받을 수도 없고, 글로벌 본사에 이 상황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도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희망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서울아산병원은 경영난으로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한 데 이어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빅5' 중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것은 서울아산병원이 처음이다. 전공의들이 떠난 이후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대학병원들은 매일 수익원에서 많게는 10억 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도 비상 경영을 선언하고 무급휴가 등에 나선 상태다.

한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는 "수술, 마취, 진료 축소가 이어지면서 많은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들이 이미 매출 축소를 경험하고 있을 것"이라며 "실적 감소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대금 지급이 늦어지고 가격 인하가 5%만 된다해도 중소 업체들은 버틸 힘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유소년인구 비중 '세계 최소' (0~14세) 내후년께 10명 중 1명 미만

국내 총인구 중 만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비율이 11% 선마저 무너졌다. 한국은 유소년인구 비중이 지난 2022년 이후 사실상 세계 최소 수준으로, 향후 2~3년 후 0~14세 인구는 국민 10명 중 1명이 채 안 될 것으로 추산된다.

14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0~14세 인구는 560만 명으로, 총인구(5129만 명)의 10.9%를 차지했다. 이들의 비중은 지난 2021년 9월 처음으로 12% 선이 깨진 이후 올해 2월까지 11%대를 유지해 왔다.

이후 3월 들어 2월(562만 명·11.0%)보다 2만 명가량 더 줄면서 역대 첫 10%대를 기록하게 됐다.

행안부, 작년말 유소년인구 10.9% 늦어도 3년 후 10% 미만으로 감소

재작년 기준 OECD 평균은 17.3% EU 평균 15.0%, 세계 평균 25.3%

총인구는 전월대비 9754명 감소했는데 유소년인구는 이보다 갑절 이상인 2만 496만 명 줄어 들었다.

연간 비중 감소 폭은 2019년~2022년 매해 0.3%포인트(p)를 유지하다 작년(-0.5%p)과 올해(-0.4%p) 더 커졌다. 비중이 재작년 3월 말(11.8%)과 비교해 2년 사이 도합 0.9%p 작아진 것이다.

산술적으로 -0.9%p가 앞으로 2년간 지속될 시 유소년인구 비율은 오는 2026년 3월 10.0%를 기록한다. 보수적으로, 이전 감소 폭인 -0.3%p(2년간 -0.6%p)를 보인다면 2027년 3월이면 10.0%이다. 즉, 늦어도 3년 후면 10% 미만으로 내려온다. 행안부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4년 3월 말 기준 14세 이하 인구와 비중은 각각 737만 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출산 장려 TV광고 갈무리.

14.4%였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0~14세 인구 비교에서 일본을 제치고 비중이 가장 낮은 회원국이 된 바 있다. 11.5%로, 일본(11.6%)의 그간 최하위 자리를 물려 받았다.

38개 OECD 회원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국은 이 비율이 가장 작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OECD가 비교한 52개국(회원국 38곳+비회원국 14곳) 중 한국보다 관련 수치가 낮은 곳은 없었다. 재작년 기준 OECD 평균은 17.3%, 유럽연합 평균은 15.0%였다. 전 세계 평균은 25.3%에 달했다. 지구촌 인구 넷에 하나는 15세 미만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OECD 회원국 중에는 이스라엘(27.8%)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는 합계출산율이 반등하지 않을 시 유소년인구는 2020년 632만 명에서 2040년 318만 명으로 반토막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면 합계출산율이 단기간 내 반등할지는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출산율 하락이 단기간 내 그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하는 총인구 추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함평 나비 대축제

2024. 4. 26. (금) - 5. 6. (월)
함평엑스포공원 일원

체험 프로그램

- 가족과 함께하는 나비 날리기
- 나비 손수건 만들기
- 바닷방울 놀이
- 전통놀이 체험
- 인디언댄스(솜타)
- 젓소목장 나들이 체험
- 나비브로치 만들기
- 나비의상 체험

문화/공연 행사

- 개막 공연
- 나비 뮤직 페스타
- 마술, 버블쇼
- 지역예술단체 공연
- 나비거리퍼레이드
- 버스킹 공연
- 엄마까투리(심어롱쇼)
- 어린이날 한마당 잔치 및 경연대회

전시관

- 나비곤충생태 표본전시관
- 수생·다육식물관
- 자연생태관
- 친환경농업관
- 곤충생태학교
- 함평추억공작소(황금박쥐전시관)
- 함평군립미술관
- VR체험관

오직 함평나비대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어요!

함평
자동차극장

함평
천지물

주최 | 함평군 주관 | 함평축제관광재단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한국관광공사 EX 한국도로공사 KORAIL 한국곤충학회 (사)한국응용곤충학회

‘퀵커머스·중고거래’ 지역 서비스 확장… 수익성 개선 이어져

모바일·온라인에서 근거리 이동

우아한형제들 배민B마트 실적 호조 당근마켓 광고매출 급증… 흑자 전환

우아한형제들과 당근마켓이 나란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업 전개로 적자의 고리를 끊고 흑자 전환에 성공해 IT·유통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치열한 치킨게임이 펼쳐지는 음식배달 시장에서 2년 연속 흑자를 거두는 데 성공했고, 수익모델 부재로 사업성을 의심받았던 당근마켓은 처음으로 창사 이래 연간 흑자를 거뒀다. 두 기업은 모바일 온라인에서 사업을 영위 중이지만 역설적으로 현실 근거리를 중심으로 이용자 서비스에 집중하면서 O2O(OnlinetoOffline) 사업을 성공시켰다.

◆우아한형제들 연속 흑자, “퀵커머스는 속도가 아닌 품목이 열쇠”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매출 3조 4000억원에 영업이익 7000억원을 기록하며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매출은 전년(2조9471억원) 대비 15.9%, 영업이익은 전년도(4241억원) 대비 65% 증가했다. 그동안 쿠팡이츠, 요기요와 삼파전을 벌이며 팬데믹 당시부터제로섬 게임을 펼치는 가운데 거둔 쾌거다.

우아한형제들의 실적 내역을 살펴보면 온라인 커머스 시장의 성장 속에 커머스 부문이 매출 성장을 이끌었고, 푸드 부문이 전체 실적 호조를 뒷받쳤다. 공



‘배달의민족’ 라이더들의 오토바이가 거리에 서있는 모습. 우아한형제들이 2년 연속 흑자를 거두는 데 성공했다. /우아한형제들

산품·식자재 등을 즉시 배달하는 퀵커머스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며 배민B마트 등 커머스부문의 실적이 개선됐고, 푸드 부문에서 알뜰배달 등 신규 서비스가 배달 시장 성장을 견인한 결과다.

우아한형제들의 실적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퀵커머스 분야에서 거둔 괄목할 성과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 중인 배민B마트는 상품 매출 6880억원(전년도 5122억원 대비 34% 증가)을 올렸다. 배민B마트의 성공요인으로는 상품군의 다양화와 함께 비용 절감을 위한 과감한 투자 및 기술 고도화를 꼽을 수 있다.

배민 앱에 입점한 셀러들이 상품을 판매하는 배민스토어는 2월 말 기준 40여 개 브랜드로, 일반판매자 500곳 이상이 입점한 상태다. 올초부터는 O2O 서비스 확장을 위해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입점도 돕고 있다.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울산, 대전, 천안 등에 약 70여개의 도심형 유통센터(Pick Packing Center, PPC) 또한 시장 확장을 통한 성장세에 한몫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퀵커머스 시장 확대를 위해 큰 투자와 비용절감을 위한 고도화 노력을 병행했다”며 “지난해부터 성과가 수치로 증명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커머스 영역에서 더욱 개선된 실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당근마켓’ 우리 동네 소식 전하자 수익 났다

당근마켓은 창사 8년만에 지난해 처음으로 흑자를 냈다. 당근마켓에 따르면 지난해 당근마켓의 매출은 1276억원, 영업이익은 173억원이다. 2022년 대비 매출은 2배 이상 늘고, 영업이익 또한 -464억원에서 흑자로 전환하며 그동안 지적 받았던 ‘구체적인 수익모델의 부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성공했다.

당근마켓은 누적 가입자만 3600만명에 달하는 중고거래 앱으로 거래 수수료가 전혀 없고 매물 자체를 지역 중심으로 전시한다. 수수료 없는 서비스

는 지역을 중심으로 간편하게 중고 물건을 정리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이 불렀고 이는 곧 강력한 광고 시장을 만들어냈다. 당근마켓은 과거 동네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나눠주던 가게 전단지과 같이 주민을 타깃으로 하는 소상공인 점포 등에 소액 광고를 받으면서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어냈다. 이와 같은 모델은 현재 당근마켓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당근은 초기부터 로컬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수요를 연결하는 하이퍼로컬 생태계를 만들고자 했다”며 “월 기준 1900만이 이용하는 전국민적인 로컬 서비스가 되면서, 당근을 매개로 지역타겟팅 광고와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며, 자연스럽게 실적 성장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자동차보험 매출 21조 돌파 대형사 중심 가입대수 증가

보험손익 5539억… 3년 연속 흑자 대형사 시장점유율 85.3% 집계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이 대형사 중심으로 증가하며 과점 구조가 다소 심화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가입대수가 증가하면서 2022년(20조7674억)보다 1.4%(2810억) 증가했다. 가입대수는 2022년 2480만대에서 지난해 2541만대로 61만 대 늘었다.

시장점유율은 대형사(삼성·현대·KB·DB)의 시장점유율이 85.3%로 증가(0.4%p)했으며, 중소형사(메리츠·한화·롯데·엠지·흥국)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비대면전문사(약사·하나·캐롯)의 시장점유율은 소폭 확대하며 약진했다. 비대면전문사는 비대면 판매채널(TM/CM)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사를 뜻한다.

채널별 판매비중은 대면 49.7%, CM 33.8%, TM 16.5% 순으로 대면채널은 감소했고 CM채널 증가 추세가 이어졌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은 5539억원으로 전년 4780억원보다 759억원

증가(15.9%)하는 등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발생손해액에서 경과보험료를 나눈 ‘손해율’은 80.7%로 전년(81.2%)보다 0.5%p 떨어졌다.

보험가입대수 증가(61만대)로 보험료 수입은 2810억원 늘어난 반면, 안정적인 사고율 유지와 침수피해 감소(735억)로 손해율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해 순사업비와 경과보험료를 나눈 ‘사업비율’은 16.4%로 전년(16.2%)보다 0.2%p 증가했다.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모두 고려한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은 97.1%로 전년(97.4%)보다 0.3%p 하락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실적은 보험료 인하 효과 누적 등 손해를 악화 요인에도, 보험가입대수 증가와 여름철 침수피해 감소 등에 따라 전년보다 손해율이 개선되고 보험손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측은 “안정적인 영업실적이 실현되고 있는 만큼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한 자동차보험 관련 ‘상생 우선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DB 모두의 마음 속엔 꿈이 있습니다

보험	금융	반도체·IT

지방 10개 교대, '지역인재' 37% 선발... 3~4등급도 합격 전망

올해 1066명 '지역인재전형' 계획
"지역 거주 학생 입학, 상대적 유리"
전국 모집정원 감축에 지역격차 심화

전국 지방권 10개 교육대학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지역인재전형을 지난해보다 3%p 늘려 37.1% 규모로 확대한다. 13년 만에 전국 교육대학 모집정원이 12% 줄어든 가운데, 지방 교대 지역인재전형은 수능 3~4등급대도 합격권에 들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뿐 아니라 교대도 지역 거주 학생의 입학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셈이다.

1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지방권 10개 교대 및 초등교육과에서 2025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의 37.1%인 1066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이는 2024학년도 33.8%(966명)에서 3.3%p 높아진 수치다.

학교별로 보면, 광주교대가 48.8%로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가장 높다. 이어 ▲대구교대 46.8% ▲전주교대 40.1% ▲부산교대 39.8% ▲공주교대 39.4%



지난달 4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초등학교에서 입학식을 마친 1학년 신입생들이 담임 선생님과 인사하고 있다. /손진영 메트로 기자 son@

순이다. 최근 정부가 교대 정원을 감축하기로 하면서 각 대학은 5월까지 새로운 전형계획을 발표해야 하지만,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은 당초 발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이 높아지면

서 의대에 이어 교대도 지방 학생의 입학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방권 교대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의 지역선발 평균은 2020학년도 1.8등급에서 ▲2021학년도 2.1등급 ▲

2022학년도 2.2등급 ▲2023학년도 2.4등급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지역인재전형 선발에서 2.7등급으로 합격한 대학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같은 전형에서 서울·경인권 교대 평균은 1.6등급으로 지방권과 격차를 보였다.

같은 해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도 서울·경인권 교대 합격 평균은 1.6등급이지만, 지방권 지역인재선발 평균은 2.8등급으로 등급 격차가 크게 발생했다.

경쟁률도 지역 격차를 보인다. 2024학년도 교대 수시모집 경쟁률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4.54대 1, 비수도권 전국 선발은 8.61대 1을 나타내지만, 지역권 지역인재 선발은 3.42대 1에 그쳤다.

정시모집도 마찬가지다. 2023학년도 서울·경인권 정시 수능 합격선은 국수탐 백분위 평균 87.2점으로, 지방권 지역인재선발의 경우 이보다 10점가량 낮은 77.8점을 나타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지방권 교대 입시 내신 합격선 2.8등급, 수능 77.8점은 내신·수능에서 3~4등급대

까지 합격권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5학년도부터 교대 모집정원이 12% 감축되면서 경쟁률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격차는 심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대표는 "지방권 교대 전국선발의 경우 10대 1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라며 "그러나 지역인재전형 선발 경쟁률은 3대 1 중반대에서 3대 1 후반대 정도 예상이고, 서울·경인권은 4대 1 중반대에서 5대 1 정도까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의대 증원 이슈, 무전공 선발 등 입시 환경 변화 속에서 교대 모집정원 감축이 맞물리며 입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진단도 나온다. 임 대표는 "2025학년도 입시는 현재까지 의대 입시 불확실성, 무전공 선발 미확정, 간호대 모집정원 1000명 증원 대학별 미확정 상황에서 교대 모집정원 감축이 확정되며 문·이과 모든 학생이 수험 전략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1면 '새로운 금...'서 계속

K편의점, '블루오션' 동남아시아 공략... 韓 푸드도 성장 견인

"올해 최고가 경신 자주 발생 할 것"

동남아시아 시장 연평균 성장률 9.1%
CU, 말레이시아 '삼성SDI점' 오픈
GS25, 글로벌서 500호점 돌파
이마트24, 상반기 캄보디아 1호점 예정

CU와 GS25, 이마트24 등 국내 편의점 업체가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적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을 타깃으로 경쟁 중이다. 실제 3사 편의점은 아시아 전 지역에 약 1천 여곳 진출해 있다. 국내 사정이 어려워지자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를 블루오션으로 본 것.

실제 영국식품 리서치 업체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동남아시아 편

의점 시장 연평균 성장률이 9.1% 수준으로 블루오션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U는 말레이시아 스름반에 있는 현지 삼성SDI 배터리 생산 공장 내에 점포를 열었다.

CU는 지난 8일 말레이시아 삼성SDI 공장 카페테리아 내 '삼성(SAMSUNG) SDI점'을 그랜드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점을 통해 삼성SDI 배터리 1공장 내 임직원들이 CU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2공장이 완공되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말레이시아 삼성SDI점은 CU가 현지에서 운영 중인 142개 매장(3월 기준) 중 첫번째로 개점한 공장 내 점

포이기도 하다.

오픈 첫날부터 삼성SDI 임직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오픈 첫날(8일)의 일 평균 매출은 현지 일반 점포보다 4.5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실제, 삼성SDI점에서 오픈 첫날 최대 판매된 상품 순위를 살펴보면 상위 10위까지 상품 중 6개가 한국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CU는 이번 개점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인근 조호바루, 말라카, 페낭 등으로 개점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전략이다.

GS리테일은 베트남에서 우세하다. 2018년 베트남 손킴 그룹과 손잡고 호찌민에 1호점을 열고 최근까지 262호점

을 개점했다. 글로벌 500호점을 돌파한 GS25는 2025년 1000호점, 2027년 1500호점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2021년 몽골 손콜라이 그룹과 함께 울란바토르에 3개 매장을 연 이후 몽골에서 277개점도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24는 올 상반기 내 캄보디아에 1호점을 내고 5년 내로 100호점을 열 계획이다. 말레이시아에서도 5년 내 300호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동남아시아에서의 K편의점 인기가 2030세대 중심으로 소비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K푸드의 성장도 견인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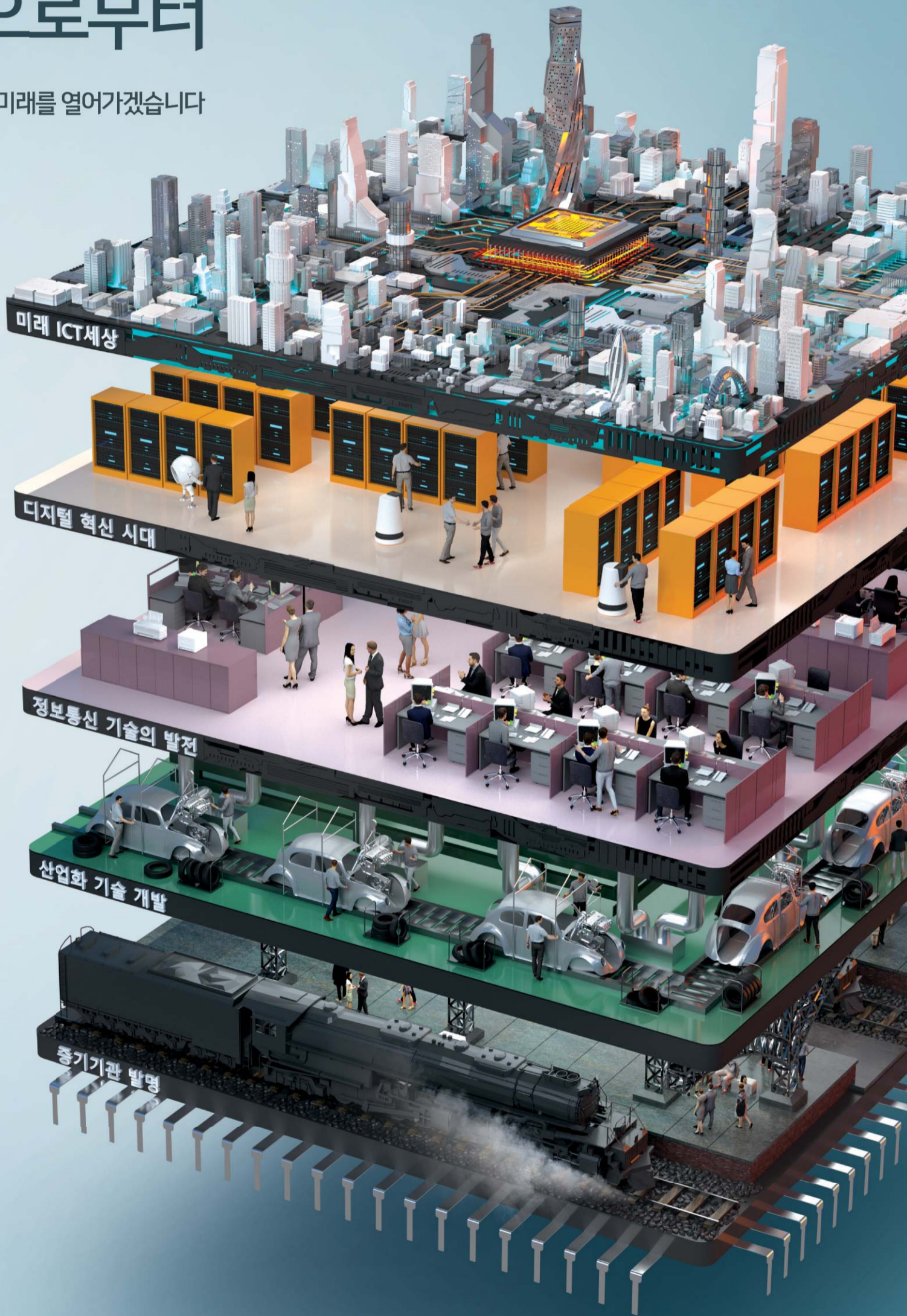
9개월 사이 653% 상승하면서 반감기 효과를 톡톡히 봤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로 반감기 호재가 가격에 선반영 됐다는 의견도 많지만 장기적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기관투자자 자금의 유입세를 가속화시키고, 반감기라는 이벤트로 비트코인 가치가 더 올라가면서 올해 최고가 경신이 자주 발생 할 것"이라며 "과거 세 번의 반감기처럼 폭발적인 상승세는 나오지 않겠지만, 반감기로 인한 비트코인 강세 사이클 정점은 올 연말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문명의 진보는 기술의 혁신으로부터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기술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조선 국회의원 132명... 현역교체율 44% 달해

민주 60명, 국힘 28명, 개혁신당 1명
이준석 대표, 4수 끝 국회입성 성공
비례대표 선거서 46명 중 43명 조선
조국혁신당, 12석... 원내 3당 만들어

제22대 국회에선 전체 의석수의 3분의1이 넘는 132명의 조선 의원들이 전문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 해결에 나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22대 총선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 가운데 조선의원은 132명에 달했다. 비율로는 44%로, 약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서 데뷔한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조선 의원은 총 151명으로 50.3%의 비율이었는데, 22대에서는 인원과 비율이 각각 감소했다.

지역구 당선자 254명 중, 민주당은 조선 의원이 60명, 국민의힘은 28명, 개혁신당은 1명이 조선 의원이 됐다. 지역구 조선 의원 중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인물은 단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다. 이 대표는 청년과 대기업 직장인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 화성읍에 출마해,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벌인 결과 금빛을 달았다. 이 대표는 현정 사상 첫



10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30대 당 대표란 타이틀을 달았지만, 3번의 출마에도 낙선했는데 4수 끝에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막말과 편법 대출 의혹을 받은 후보들도 조선 국회의원이 됐다. 경기 수원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기 수원정에는 막말 논란을 일으킨 후보가 의원이 됐다. 역사학자로 활동했던 김준혁 당선인은 과거 여러 방송이나 유튜브에 출연해 고(故) 박정희 대통령 등 한국 현대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풀어내곤 했는데, 과격한 발언도 더해지면서 총선 막판에 큰 논란에 휩싸였다. 상대 후

보였던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도 '대과값' 관련해서 실언을 하면서 경기 수원정은 '막말' 후보가 조선에도 도전하는 지역구가 됐다. 결국, 막판에 이수정 후보가 역전당하면서 김준혁 당선인이 조선 국회의원이 될 예정이다.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서울 종로구에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과상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조선 국회의원에 오른다. 변호사로 활약해온 과 당선인이 장인어른인 노 전 대통령과는 어떤 색다른 정치를 보여줄 지도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사실, 조선 국회의원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지역구보다 비례대표 선거에서다.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선 전체 46명 중 43명이 조선을 차지했다.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각각 1명씩, 조국혁신당에서 1명이 현역 의원 출신이었다. 국민의미래에선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연합에선 용혜인 의원이, 조국혁신당은 황운하 의원이 다시 한번 국회의원이 됐다.

비례대표 중에서 가장 화제성이 있는 조선 국회의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비례대표에서 12석을 가져가면서 원내 3당을 만들었다. 조국 대표는 민주당보다 선명한 진보정당을 만들겠다고 조국혁신당을 창당했는데, 공약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 도입, 권력 기관 지방 이전 등을 공약해 과연 제22대 국회에서 실제로 실현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조국혁신당

“尹에 하고 싶은 말 있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공개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만남을 요청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용산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다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총선 전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킨다는 목표가 있었기에 만나지 않았다”며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피의자”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이용해 정적을 때려 잡으면 총선 승리와 정권재창출은 무난하다고 믿었을 것”이라며 “꼼잡하고 압살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목표달성은 무산되었고, 국힘은 총선에서 참패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3일 오전 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당인 175명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가 윤 대통령과 만남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회동 관련한 질문에 “정치라는 게 근본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며 “대통령도 야당의 협조와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를 자처하는 신평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 거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신 변호사는 지난 12일 YTN 방송에 출연해 “두 분(윤 대통령, 이 대표)의 만남을 하지 말라 한 참모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께서 최근에 그 참모를 너무 오랫동안 신임해 후회한다”고 전해 들었다”며 “윤 대통령도 그 (두 사람의 만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與 고동진·野 안도걸 등... 경제 전문가들의 국회 입성

국제경제 ‘시계 제로’... 전문가 절실
與 추경호·이종욱·조정훈 당선인
野 조인철, 조국혁신당 이해민 ‘주목’

백척간두에 선 한국경제를 입법과 정책 능력으로 구해낼 기업인, 경제 관료 출신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 관심이 쏠린다.

고물가와 고금리 현상으로 민생은 어렵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전면전에 돌입한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등 국제정세도 ‘시계 제로’인 상황이기 때문에 경험 많은 경제 전문가의 국회 진출은 절실한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눈여겨 볼 당선인은 평사원에서 삼성전자 대표이사까지 지낸 고동진 강남구병 의원이다.

여당의 텃밭인 서울 강남에 공천을 받아 무난하게 국회에 입성한 고 당선자는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노트’ 시리즈



고동진 강남구병 당선인 안도걸 광주동남을 당선인

를 성공시킨 것으로도 유명하다.

전임 경제부총리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여유롭게 대구 달성군에서 3선 고지에 올랐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한 추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당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정책과 예산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경남창원시진해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황기철 후보를 단 497표 차로 이긴 이종욱 국민의힘 후보는 기획재정부 기초실장과 조달청장을 지낸 ‘경제

전문가’임을 자부하고 있다.

여당에서 국제경제 전문가는 조정훈 마포갑 당선인이 꼽힌다. 지난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입성한 조 당선인은 이번에는 지역구 선거에 도전해 경찰 출신 이지는 후보를 꺾었다. 조 당선인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광주동남을 당선인이 당의 경제통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안도걸 당선인이 민주당에 입당할 때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 예산실장을 거쳐 차관까지 하면서 우리 당이 필요로 하는 예산과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이해를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와 원만한 협조를 통해 성과를 많이 보여줬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을 지낸

조인철 광주서갑 당선인도 전직 경제 관료로 실무에 능숙하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장을 역임했다.

다만, 고동진 당선인과 함께 대기업 대표(현대차 사장)를 지내 국회 입성이 주목받았던 공영은 후보는 경기 화성읍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에게 패배해 도전을 멈췄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에선 이해민 당선인이 관심을 끈다. 이 당선인은 글로벌 기업 구글의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와 오픈서베이 CPO(최고 제품 책임자) 출신으로 기업과 IT 입법, 정책 분야에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조국혁신당의 과학기술 공약을 맡아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에 맞서 과학기술 예산을 정부 지출의 7%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펴 눈길을 끌었다.

/박태홍 기자

대통령실 참모 교체하는 ‘소폭개편’에 그칠 수도

» 1면 ‘총선 패배尹’서 계속

거기다 기본적으로 총리나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는 기용 전 인사검증이 필요한 만큼, 이날이나 금주에 후임 인선을 발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인적 개편의 폭과 내용에 따라 쇄신의 의지를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끌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울러 안보실장을 제외한 대통령실 실장·수석 전원이 사표를 냈는데, 이를 모두 수용할 지 여부도 고심거리다.

정책실장, 경제수석 등의 사의는 정책 연속성을 고려해 반려했을 수 있으며,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등 참모를 교체하는 ‘소폭개편’에 그칠 수도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조만간 4·10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과 국정 쇄신 방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 입장을 발표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인적개편과 입장 발표를 같이 할 지 등도 검토 중이다.

/서예진 기자 syj@

민주당, 제1호 추진과제 ‘채 상병 특검’

조국혁신당도 특검법 통과 힘 보태

제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제1호 추진과제는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사건은 총선 한참 전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과 책임자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요 현안이 된 바 있다.

특히,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정부에 의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민심을 흔들었다.

이 전 장관은 총선을 한달 앞두고 자신 귀국했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결단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결국 자진사퇴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의석수 단독 과반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별검사제’를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장에서 “정부·여당은 집권 2년의 국정 운영에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불신임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행동으로써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이다. 윤석열 정권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는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며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은 정권심판론을 재점화시키는 등 총선에서 큰 쟁점이 됐고, 이것은 국민 대다수가 특검법을 지지하고 있기 때

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채 상병 사건 특검법을 주도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다. 특검법 신속처리안건은 현재 본회의에 자동부속된 상태이다. 21대 국회 임기는 아직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이다.

조국혁신당도 특검법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국민은 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새로 거듭나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우선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꼼수’인지를 말이다”라며 “채 상병 특검법은 참과 거짓을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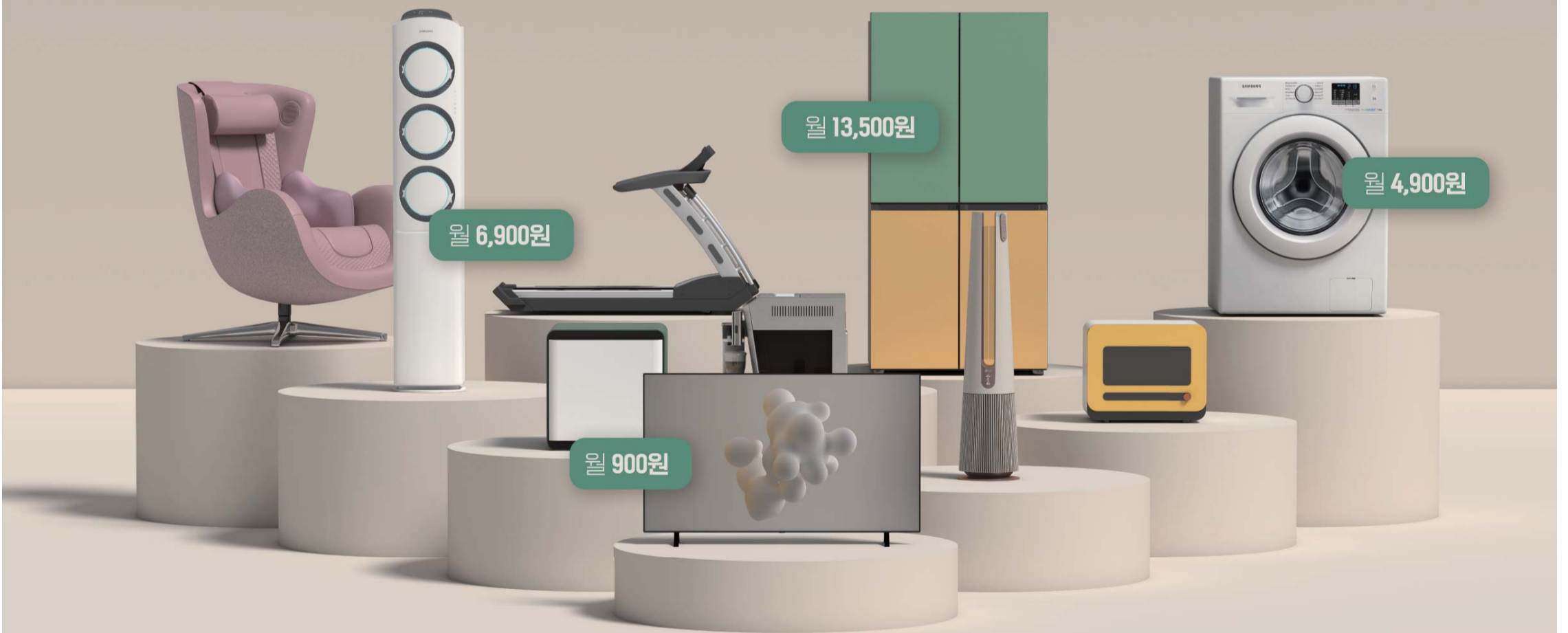
/박태홍 기자

LG HelloVision

Hello rental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

상담문의 1855 - 1082

※ 최저가 비교기준 : 22년 3월 N사 쇼핑 기준, 삼성TV(KU50UA7050FXKR), KB제휴카드 전월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 월 렌탈료는 품목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상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등 보험업법 개정안 40% 처리

제21대 국회, 보험 성적표

총 65건 개정안 발의, 26건 통과 제20대 국회比 처리비중 16%p↑ 미처리 법안 내달 자동폐기 예정 유사 법안 발의 시 모니터링 필요

26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9건의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가운데 다음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개시한 제21대 국회에서 총 6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 중 2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나머지 39건은 처리되지 않았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제20대 국회 대비 제21대 국회에서의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비중은 24%에서 40%로 높아졌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총 63건이 발의돼 15건이 처리되고 1건은 철회, 47건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에는 ▲IFRS17 도입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손해사정제도 개선 관련 내



지난해 10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8인, 재석 225인, 찬성 205인, 반대 6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시스

용 등이 포함됐다.

손해사정제도 개선 등에 관한 보험업법은 지난 2월 개정돼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에서는 보험사의 손해사정업무 수행 또는 위탁 시 준수 사항, 손해사정사 교육,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 등 손해사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규정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에 관한 보험업법은 지난 10월 개정 및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 및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 및 보험산업의 혁신 촉진을 위한 취지에서도 보험

업법을 개정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의 자본금 요건 완화,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 부담 완화, 책임준비금 적정성 관련 외부검증 의무화 등을 포함한다.

또한 통신회사를 통한 보험계약 해지의 요건을 완화하고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했다.

반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공·사의료보험 정책의 연계 추진 ▲제재 처분의 합리화 ▲소비자에 대한 설명·안내의무 강화 ▲보험회사의 민원 처리 관련 내용 등으로 대다수 소관위에서 계류 중이다.

특히 공·사의료보험의 경우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정책 연계의

근거를 마련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2021년 9월 발의됐으나 의료계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민간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법안이라며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미처리된 법안의 경우 오는 5월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후 전개될 제22대 국회에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21대 국회에서는 IFRS17 도입에 대비해 보험업법을 정비하고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와 손해사정제도 개선과 같은 보험업계의 오래된 과제를 해결하는 성과가 있었다"라며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은 제21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폐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국회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카드 News

해외여행 KB국민카드로 할인 받고 떠나요!



KB국민카드 제휴사 해외여행상품 호텔·항공권 할인제공

KB국민카드가 해외여행 할인을 제공한다.

◆ 해외 여행상품 및 호텔, 해외 항공권 등 할인

KB국민카드는 합리적인 해외여행을 위해 제휴 여행사 해외 여행상품 및 호텔, 해외 항공권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5월 31일까지 KB Pay 여행 내 제휴 여행사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좋은여행에서 해외 패키지 결제 시 3% 즉시 할인을 제공한다. 호텔패스에서 해외 호텔 결제 시 8% 할인, 하나투어에서 1박당 10만원 이상 해외 호텔 결제 시 7% 할인을 제공한다.

4월 30일까지 해외 항공권 결제 시 내일투어에서 최대 19%, 인터파크트립에서 최대 20% 즉시 할인을 제공한다. 와이페이모어에서 해외 항공권 결제 시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8% 청구 할인을 제공한다.

4월 30일까지 NHN여행박사에서 일본/동남아 여행 상품 결제 시 5% 즉시 할인을 제공한다. ▲50만원 이상 결제 시 2만5000원 할인 ▲100만원 이상 결제 시 5만원 할인 ▲150만원 이상 결제 시 7만5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

'도서관의 날' 맞아 아름다운 기부 이벤트

신한카드가 도서 기부 캠페인을 실시한다.

◆ 아름다운 도서관에 도서 기부

신한카드는 4월 12일 '도서관의 날'을 맞아 고객과 함께 '아름인(人) 도서관 지원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액에 상관없이 캠페인에 기부한 신한카드 고객 수만큼 전문가가 추천하는 권장도서를 전국 지역아동센터 내 '아름인 도서관'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신한카드의 기부 전용 사이트인 '아름인'에서 4월 한 달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도서관의 날이 있는 4월에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아름인 도서관은 아동, 청소년, 지역주민을 포함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지식을 전달하고 디지털 이해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김주형 기자

분양 캘린더

전국 6개 단지서 7980가구 분양

4월 셋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7980가구(일반분양 509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북정동 '엘리프남위례역에듀포레',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자이포레 나퍼스티체', 대전 유성구 봉명동 '유성하늘채하이애르' 등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건본주택은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진아래히', 대전 중구 문화동 '문화자이SK뷰' 등 3곳이 오픈 예정이다.

KR산업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북정1지구 B3블록에서 '엘리프남위례역에듀포레'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29층, 6개동, 전용면적 84㎡, 51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지난 2022년 진행했던 사전청약본 143가구를 제외한 367가구가 본 청약이 시작된다.

단지는 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 역세권 단지이며 송파대로, 동부간선도로 등을 통해 서울 강남권 진입이 용이하다. 위례신도시와 맞닿아 있어 생활인프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대전시 중구 문화동 일원에서 '문화자이SK뷰'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4층, 19개동, 총 1746가구로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52~84㎡ 120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 인근에는 충청권광역철도 문화역(가칭, 1단계구간 2026년 개통목표)이 신설될 예정으로 향후 교통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김대환 기자 kdh@

보장강화 vs 재정안정... 연금개혁 민심은?

21대 국회 종료 앞두고 개혁 박차 시민토론 통해 추진 방향 결정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6주 앞두고 연금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연금개혁이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이에 시민 대표단이 연금개혁의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1일까지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을 위한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를 내 차례에 걸쳐 주최한다. 토론에서는 '재정안정 중심'과 '보장강화 중심'의 두 가지 개혁안을 논의한다.

이후 연금특위는 4차 토론을 마친 후 500인의 시민 대표단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개혁안을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재정안정 중심' 개혁안은 현행 소득 대체율(40%)을 유지하되, 현행 연금 보험료율(9%)을 3%포인트(p) 인상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다. 기금 소진을 늦추는 한편, 이후 미래세대가 국민연금 재정 충당을 위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게 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석재은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이) 저성장·인구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 만큼 미래세대로 부담을 넘기지 않는 것이 (연금개혁의) 핵심"이라며 "이미 많은 OECD 국가가 공적연금의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내



는 돈과 받는 돈을 일치시키는 개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저출산·초고령 사회에서는 보험료율을 늘리는 데에 한계가 있고, OECD 국가들의 공적연금 보장 수준도 기본 보장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40% 소득대체율은 적절한 수준이며,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선 기초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재정안정 중심 개혁안의 예상 기금 고갈 시기는 기존의 2055년보다 8년 늦어진 2063년이다.

'보장강화 중심' 개혁안은 현행 소득 대체율(40%)을 10%p 인상하고, 현행 연금보험료율(9%)도 4%p 인상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동시에 보장성도 강화하는 방안이다. 생애 소득(개인 평생 벌어들이는 소득)의 재분배라는 연금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남찬섭 동아대학교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은 이미 소득대체율을 두 차례 인하했고, 이에 소득대체율 수준이 OECD 평균의 61.5% 수준에 불과하다"며 "소득대체율 하락 효과는 청년세대로 갈수록 크게 나타난다"고 말

/양승진 기자 asj1231@

車·조선업계, 22대 국회 예의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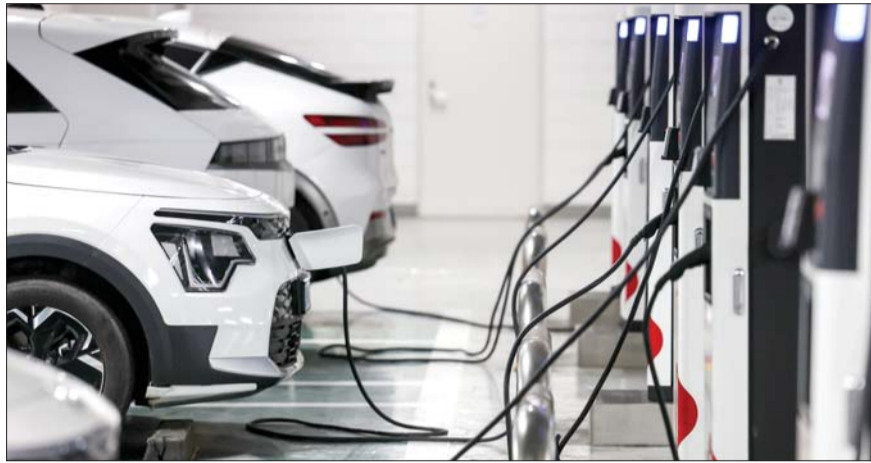
“전기차 인프라·해외인재 확보 절실”

기업환경 개선 기대감 높아져
전기 등 에너지 요금 인상 촉각
인력난 해소 위한 정책지원 호소

국내 산업계가 저성장, 고물가, 저출산 등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22대 국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차기 국회도 여소야대로 이어지면서 위축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 소비 확대를 높여 기업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업계는 최근 침체된 전기차 시장 분위기를 반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전기 요금 인상은 전기차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완성차 업계는 물론 전기차 대기 수요자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 정부는 한전의 전기차 충전 요금 특례 할인 종료에 따라 공공 전기차 급속 충전기 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100kW 기준 kWh당 309.1원에서 347.2원으로 올랐다. 이후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운영하는 민간업체들도 줄줄이 인상에 동참했다.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인 저렴한 유지비가 사라진



지난 2일 서울 시내 주차장 내 전기차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되고 있다. /뉴시스

다면 구매 심리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은 충전 인프라 문제나 안전성 등의 우려에도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저렴한 유지비가 핵심이었다”며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같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 주력 산업이면서 노동집약적산업인 조선업계는 해외인재 유치가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한국경제는 인

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현재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산업 전반의 인력 부족이 만연한 상황이다”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통해 생산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우선은 해결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지원 확대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어장벽과 문화 차이를 겪고 있는 이민자 가족을 위한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배터리3사,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박차

2040년 2089억弗 시장 전망
지분투자 등 다양한 형태 참여

전기차 생산과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대한 배터리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배터리 재활용 체계가 갖춰지면 폐배터리로부터 원료를 회수할 수 있어 탄소 감축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 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가 지난 2022년 80억달러에서 2040년 2089억달러로 26배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유럽연합(EU)이 배터리 재활용 의무 비율을 높이는 배터리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국제적으로 재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이에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

루션·삼성SDI·SK온)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지분투자 등으로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21년 미국 배터리 재활용 기업 라이사이클에 지분 투자를 진행했다. 당시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과 함께 양사 각 300억원을 투자해 2.6%를 확보하고 10년간 니켈 2만톤 공급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에는 중국 광물 제련 기업 화유코 발트와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SDI는 배터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스크랩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삼성SDI는 국내 배터리 재활용 기업 성일하이텍의 지분 8.79%도 보유하고 있다. 삼성SDI는 배터리 불량품이나 폐기물을

성일하이텍에 공급하고 성일하이텍이 원료를 추출해 다시 삼성SDI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

SK온 역시 폐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사업을 전담하는 헝가리 법인을 세웠다. SK온이 헝가리를 택한 이유는 유럽 내 친환경 규제 강화 분위기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배터리 생산 시 발생하는 불량품, 스크랩 등 폐배터리 처리를 외부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에 맡겼지만 이제 SK온이 직접 관여하겠다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재활용은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적인 과제”라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적극적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추진한다면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HD현대-팔란티어, 무인수상정 개발 MOU

2026년까지 정찰용 USV 개발

HD현대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이하 팔란티어)와 손잡고 무인수상정(Unmanned Surface Vessel, USV) 개발에 나선다.

HD현대는 최근 미국 워싱턴 D.C.의 팔란티어 사무실에서 팔란티어와 ‘무인수상정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팔란티어는 미국 국방부, 해군, 육군 등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미국 최고의

방산 AI(인공지능) 기업으로 꼽힌다. 세계 1위 방산기업인 록히드마틴사와 미 해군의 통합 전투시스템 현대화 사업에도 참여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2026년까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정찰용 USV를 개발하고, 이후 전투용 USV로 개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사는 HD현대의 자율운항 전문회사 아베커스의 자율운항 소프트웨어와 팔란티어의 미션 오토노미(Mission Autonomy, AI 기반 임무 자율



HD현대중공업 위원호 특수선사업대표(왼쪽), 팔란티어 라이언 테일러 CRO 및 CLO가 최근 미국 워싱턴D.C.의 팔란티어 사무실에서 ‘무인수상정(USV)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

화)를 접목한다. HD현대중공업은 또한 탐재될 첨단 장비와 시스템을 통합하고, 고성능 선체 개발을 맡는다. /차현정 기자

SK온-지멘스 DISW, 스마트공장 구축 협력

‘디지털 트윈’ 기술 등 활용

SK온이 글로벌 테크기업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이하 ‘지멘스 DISW’)와 협력해 스마트 공장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배터리셀 제조 과정을 혁신하고 비용을 절감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SK온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지멘스 DISW와 ‘배터리 제조 공장 디지털 트윈 구축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SK온 이석희 대표이사 사장과 오기영 팩토리 이노베이션 담당, 지멘스 DISW 토니 헤멜건(Tony Hemmelgarn) CEO, 오병준 한국지 사장 등이 참석했다.

‘디지털 트윈’은 공장을 설계 및 가동하기 전후로 가상 환경에 그대로 복제해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이다. 지멘스는 이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꼽힌다.



(왼쪽부터)이석희 SK온 사장과 토니 헤멜건 지멘스 DISW 최고경영책임자(CEO)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배터리 제조 공장 디지털 트윈 구축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온

SK온은 지멘스 DISW의 개방형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인 ‘엑셀러레이터(Xcelerator)’ 제품군에 포함된 디지털 트윈 소프트웨어와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가상 공장 and 실제 현장 간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로 장비 보전 시간이나 운영 비용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LG에너지솔루션, ‘AI’ 기반 업무혁신 추진

‘AI 통합 플랫폼’ 연내 구축 방침

LG에너지솔루션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에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업무 전반에 생성형 AI 기술 도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먼저 업무에 AI 기술을 도입한 건 ‘유튜브 트렌드 리포트’다.

유튜브는 시장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지만, 정보의 양이 워낙 많은데다 콘텐츠별로 정확성이나 객관성 정도의 차이가 커 임직원들이 일일이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컸었다.

‘유튜브 트렌드 리포트’ AI가 유튜브 영상을 분석해 배터리 관련 분야 최신 트렌드 내용을 정리해 임직원

에게 메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임직원들의 시장 파악 업무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생성형 AI의 대표적인 기술인 대화형 챗봇도 활용 단계에 들어갔다. 회사내 경력 사원이 전체 국내 구성원의 약 40%를 차지하는 만큼 직원들이 빠르게 회사 제도를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AI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업무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AI 통합 플랫폼’을 올해까지 구축 완료할 예정이다. 통합 플랫폼을 통해 ▲고객 및 협력사 계약 관리 ▲전사적 자원 관리(ERP) ▲소프트웨어 개발 ▲원자재 구매 ▲배터리 제작 등 전체 업무 분야에 AI를 접목시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LCC업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팔 걷어

울란바토르, 제주 등 신규 취항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서남권 거점공항인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은 2007년에 개항한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그동안 코로나 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주춤했던 공항 이용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국내 항공사들이 국내, 국제선 운항 확대와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진행하면서 침체된 공항 활성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의 지난해 이용객은 25만명으로 2022년 5만명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항공사마다 이용객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진에어는 5월 8일에 무산~울

란바토르 노선을 신규 취항한다. 무안~울란바토르 노선은 B737-800 항공기가 투입되며, 매주 수·토요일에 출발하는 일정으로 5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운항한다. 출발편은 현지 시각 기준으로 무안국제공항에서 21시 30분 출발해 다음날 0시 30분에 울란바토르에 도착한다. 귀국편은 울란바토르에서 1시 30분에 출발해 무안국제공항에 5시 50분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제주항공은 오는 24일부터 무안~제주 노선 주 4회 일정으로 운항에 나선다. 제주항공의 무안~제주 노선은 제주에서 매주 수·일요일 오후 6시 55분, 화·토요일에는 오전 7시에 출발하며, 무안에서는 매주 월·금·일요일 오전 8시 40분에 출발하는 일정으로 운항한다. 내달 1일부터는 수요일 오전 7시 40분 무안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추가된다. /양성운 기자

정부, 대외무역법 개정 착수... 반도체장비 中수출통제 초읽기

산업장관, 美상무장관과 현안 논의 도입 본격화 대비 법적 근거 마련 업계선 “콩고물 모두 챙기겠다”

미-중 갈등 속 한국도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가 본격화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시작됐다. 미국은 2022년 말부터 중국의 첨단산업 분야 기술 성장 견제를 위해 대중(對中) 수출을 통제하며 우방국에도 이를 압박하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을 만났다. 이날 안 장관은 러몬드 장관과 제2차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SCCD)의 개최를 통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체제에서의 양자 협력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안 장관은 정부의 대중 수출통제에 관한 수용 정도에 대해서는 바세나르협정과 같은 다자 수출통제 체제, 그리고 미국과 양자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장관 간 만남 이후 대중 수출통제 조치 도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안 장관은 미국 입국 당시 대중 수출통제 문제에 관해 “기본적으로는 동맹들과 같이 공조를 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지난 2022년 말부터 반도체 제조 기술과 장비 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우방국에도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마이클 매킨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갤러거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상무장관에게 “한국·일본 기업들이 마이크로 이 잃은 시장점유율을 가져가지 않도록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공동취재단

록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수출 통제에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 기술 수준이 선진국인 한국이 중국 수요에 대응을 한다면 사실상 미국의 시도가 완전한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다.

미국의 요구에 관한 시각은 “외교적으로 무례하다”를 전제로 하지만 해석 방향은 다양하다. 정부는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를 위한 요청을 현실적으로 모두 들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면서 동시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이득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대외무역법과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수출통제 조치 도입이 본격화 할 경우를 대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 것으로, 현행법에는 수출통제와 관련한 근거 조항이 희박하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대중 수출통제가 곧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책인 반도체법(CHIPS Acts)으로 이어지면서 지원책도 쏟아지는 만큼 떨어지는 콩고물은 모두 챙기겠다는 분위기가.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통과시킨 반도체 법은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

책으로, 자국 기업의 반도체 제조 공장 리쇼어링(Reshoring, 자국 생산시설 국내 귀환)과 함께 해외 글로벌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과격적이다. 앞서 삼성 전자 또한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 정부로부터 텍사스 주(州) 반도체 생산기지 추가 건설 및 확장을 위한 용도로 60억 달러(8조 20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대중 수출규제가 강해질수록 한국 기업에는 다소 유리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반도체 장비에 대한 세계 시장 점유 수준은 그리 높지 않아 타격을 클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날 중국 정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수출통제에 관해 자국 기업 6곳이 새롭게 포함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허야동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며 중국 기업에 일방적인 제재와 ‘장기적 관할권’을 자의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전혀적인 경제적 강압과 일방적 괴롭힘 행위”라고 규탄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단통법·방송규제 등 여야 합의 ‘이목집중’

야당 압승에, 현정부 주요현안 항방은 단통법 폐지·플랫폼법 논의 지속 전망 인공지능 육성·방송 규제안은 ‘글세’

4·10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현 정부가 적극 진행 중이던 ICT(정보통신기술)·미디어 부문 제정 항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업계는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가진 단통법 폐지와 플랫폼법 제정안은 본격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 반면, 인공지능 육성 관련 법안 등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161석과 비례에서 더불어민주당 연합 14석을 합쳐 175석을,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 18석으로 108석을 확보했다.

이처럼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현 정부가 주요 현안으로 삼은 인공지능(AI), 단통법, 방송 규제, 플랫폼법 등 관련 여야 합의가 주목된다.

먼저 ‘인공지능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은 과기정통부의 올해 주요 입법과제이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이를 추진했던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대부분 낙선하면서 관련 법률안의 추진 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최근 유럽연합(EU)의 AI 규제법이 유럽 의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도 법·제도적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야당이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미디어 분야에선 방송 인허가·소유 규제 폐지·완화안이 발표되지 한 달만에 22대 국회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달 13일 국무총리실 산하 미디어·콘텐츠융합발전위원회(융발위)가 해당법안을 공개했다. 핵심 내용은 ▲IPTV·케이블·위성·휴소핑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폐지와 등록·신고제 도입 ▲방송사 지분 소유제한 대상인 대기업에 대한 자산총액 기준 국내총생산 연동 등인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선 방송법 개정이 불가피해 여야 합의가 관건이다.

반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과 ‘플랫폼법(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안’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

먼저 통신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이 제도는 단통법을 개정하는 대신 시행령을 수정해 만들어진 만큼 야권에서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은 변수로 지목된다.

플랫폼 업계선 연초 논의가 중단된 플랫폼법이 재추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야권이 관련 법안을 20여건 발의하는 등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여온 만큼 규제 논의가 본격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율촌은 ‘총선 이후 정책방향·입법환경’ 보고서에서 “플랫폼 규제 입법은 여야 공통 공약”이라며 “국내외 빅테크 기업이 관련 협회와 미국 상공회의소(암참)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반대를 표명하고 있어 입법 진행 과정에서 외국계 기업 고객에 강점을 가진 로펌 간 치열한 로비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LGU+, ‘양자통신’ 생태계 조성 본격화

서울대 연구팀과 백서 발간

LG유플러스가 서울대 연구팀과 손잡고 양자통신 생태계 조성에 본격 나선다.

LG유플러스는 14일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이경한 교수 연구팀(NXC연구실 이민재, 곽동수, 박찬정 석박통합과정 연구원)과 함께 ‘미래 양자통신 백서(백서)’를 발간했다.

최근 양자기술은 글로벌 기술 혁신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2035년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을 통해 3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양자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LG유플러스와 NXC연구실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학계와 정부, 기업에 양자정보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활용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양자정보기술을 크게 양자통신·양자컴퓨팅·양자센싱으로 분류하고, 양자통신의 기술동향과 발전방향을 세부적으로 소개했다.

또 새로운 차세대 배터리, 수소 에너지 공정 등을 개발하는 화학공학분야는 물론 유동 최적경로를 찾는 물류분야와 파생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금융분야에서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했다.

LG유플러스 이상현 네트워크전략개발담당은 “다가올 양자통신시대를 미리 예측하고 연구개발과 비즈니스로 더욱 진보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백서를 발간하게 됐다”며 “LG유플러스는 AI 및 양자통신을 비롯한 차세대 네트워크 트렌드를 리드하며 기업, 기관, 소비자 등 여러 고객에게 차별적인 고객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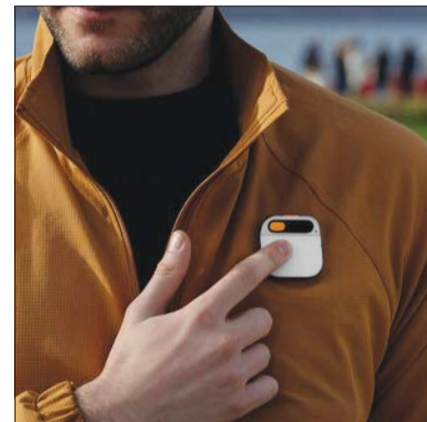
휴메인, 웨어러블 ‘Ai 핀’ 美 판매 개시

자체 개발 AI 운영 체제 코스모스 구동

휴메인(Human Inc.)이 웨어러블 인공지능(AI) 컴퓨터인 휴메인 Ai 핀을 미국 전역에서 판매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Ai 핀은 독립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다양한 상황에서의 보조 및 제2의 두뇌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웨어러블 컴퓨터다. 텍스트 및 데이터 그리고 사진 및 비디오 저장 능력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월간 요금제에 의해 구동된다.

휴메인 Ai 핀은 지능형 기술과 사용자 친화적인 상호작용 및 첨단 보안 기능을 결합했으며 휴메인이 자체 개발한 Ai 운영 체제인 코스모스가 구동한다. 코스모스는 제품 업데이트를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으며 기기와 클라우드에서 모두 운영되도록 독특하게 설계되었다. 휴메인 고유의 Ai 버스 클라우드 아키텍처와 컨택트 시스템은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관리할 필요 없이



휴메인의 Ai 핀을 장착한 모습. /휴메인

사용자를 그들의 행동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Ai 경험에 즉각적이고 지능적으로 연결한다.

Ai 핀은 이클립스(699달러 번들)와 루나와에퀴노스(799달러 번들)를 포함한 3가지 컬러웨이 옵션으로 제공된다. 액세서리는 휴메인 Ai 클립(49달러), 래치(39달러)와 9 가지의 다른 실드 색상(29달러)을 포함하여 별도로 구입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딥핑소스, 日 소매업계 디지털 혁신나서

aix와 ‘매장케어링 솔루션’ 현지 진출

‘AI 리테일테크 스타트업’ 딥핑소스가 일본 도쿄에서 데이터 중심 마케팅 솔루션 회사 aix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본의 aix와의 제휴를 통해 딥핑소스는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판매 확장을 목표로 한다.

14일 딥핑소스에 따르면 aix는 글로벌 AI 마케팅 분야에서 선두 기업으

로, 딥핑소스의 혁신적인 AI 기술을 통해 일본 소매업계의 고객 서비스 및 운영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딥핑소스는 매장 운영과 고객 행동 분석을 AI로 처리하여 매장 환경을 최적화하는 ‘매장케어링 솔루션’을 제공한다. 솔루션은 실시간으로 매대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여 쾌적한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CARM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2024.04.26(금)

13:00~17:00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연사-



Robert Coppes
University Medical
Center Groningen



Ryuichi Okamoto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
(TMDU)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임승원
현 애니젠 고문
전 한국R협회의 상근부회장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최미혜
한국거래소
차장



정형구
미래드생명과학
이사

■ 행사개요

•행사명: CARM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일 시: 2024년 4월26일(금) 13:00~17:00

•장 소: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1층)

•주 최: (사)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후 원: 충청북도

•등 록: 운영사무국 M&C기획 02-721-9818 선착순, 사전접수만 입장 가능

포럼에 참가한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Registration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2:30~13:30	사전등록 (13:00~13:30 MP Tea 타임)
개회 및 축사	13:30~13:50	이특주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섹션1	13:50~15:3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연구 및 현황 강연1: Robert Coppes 교수 (동시통역제공) "Organoids for Post-Radiotherapy Regeneration of Salivary Glands, the RESTART study" 강연2: Ryuichi Okamoto 교수 (동시통역제공) "Clinical application of patient-derived organoids" 강연3: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의 현황과 전망" 강연4: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인간전분화능 줄기세포 유래 오가노이드 원천 및 활용 기술 개발"
브레이크타임	15:30~15:45	커피 브레이크 및 자유네트워킹
섹션2	15:45~17:0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시장과 전망 정형구 미래드생명과학 이사 "재생치료제 동향 및 오가노이드의 역할" 임승원 전 한국R협회의 상근부회장 "바이오벤처기업의 IPO 전략" 최미혜 한국거래소 차장 "찾아가는 기술특례 상장 설명"
폐회	17:00	정부 관계 부처 및 금융기관 전문가

중동 위기에 강달러·고유가 지속... 국내증시, 변동성 확대

코스피, 전주비 32.39포인트 하락
기업밸류업·금투세 폐지 불확실성
美 기준금리 인하시점 연기 등 악재
반도체·AI 중심 포트폴리오 권고

고금리, 고환율, 밸류업 기대 후퇴 등
대내외 악재로 국내 증시가 부진한 가
운데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까지 겹치면
서 증시 변동성 확대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
수는 지난 12일 2681.82로 전주보다
32.39포인트(1.19%) 내려 3주 연속 하
락세를 보였다. 밸류업 기대감이 약화
되면서 보험(-7.22%), 전기가스(-5.
87%), 금융업(-4.22%) 등 저PBR(주가
순자산비율) 업종의 낙폭이 두드러졌
다. 이는 지난 10일 총선에서 여당이 참
패하면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금융
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정책 불확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25.14포인트(0.93%) 하락한 2681.82로 장을 마친 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3원 오른 1375.4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고, 연
내 인하폭이 축소될 것이라 전망이 확산

된 점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미
국 2년물 금리가 4.9%, 10년물 금리도
4.5%대로 상승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이 축소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17개월
만에 1370원대를 넘어서며 외국인 수급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외
국인 투자자는 지난 12일 코스피200 선
물을 1조3267억원어치 순매도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
국이 높은 경제 회복력을 보이며 강한
고용과 완고한 물가 변동성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후퇴한
반면, ECB(유럽중앙은행)은 오는 6월
첫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 달
러가 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으로 중동
지역 분쟁이 본격화하고 있어 당분간
강달러·고유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지
정학적 리스크로 강달러, 유가 추가 상
승 가능성이 높다”며 “가장 강력한 저항
구간이었던 1370원 이후에는 1400원대
까지 딱히 저항 구간이 없어 원·달러 환
율은 1400~1410원까지 상단으로 열어
둘 수 있으며 WTI는 지난해 고점인 93
~95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

혔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증시에 불리한
여건이 유지되고 뚜렷한 반등 계기가
없어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
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2분기에는 통화정책 기대심리가 약해
진 가운데 경기둔화가 맞물리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며 “2분기에는 위험 회피(Risk Off) 심
리를 강화하고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
한 경계 심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수출과 실적
전망이 좋은 업종이 양호한 흐름을 보
일 것으로 관측된다. 김혁환 NH투자증
권 연구원은 “주식시장 내에서도 가장
명확해 보이는 분야로 수급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도체 등 미국 빅테
크들의 인공지능(AI) 투자와 관련된 분
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與野, ISA 혜택 확대 기조 유지될 듯... 기대감 '들쭉'

ISA 혜택확대로 국민 자산증식 목표
민주당, 한도없는 비과세 공약 제시
국민의힘,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

‘4.10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린 가
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
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체로 금융투
자 부문 공약은 여야가 대립했지만, ‘IS
A 관련 혜택 확대’에 대해서는 합의점
을 찾아볼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SA 자
체는 2016년 첫 출시됐지만 2021년 ‘투
자중개형 ISA’가 신규 도입되면서 증
권가에서도 ISA를 주목하고 있다. 중
개형 ISA는 위탁매매업 허가를 받은
증권사만 판매 가능하며, 이는 신탁·일
임형과는 다르게 개인이 개별 종목을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적
극적인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아
울러 올해는 2021년부터 적용된 ISA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SA 자체는 2016년 첫 출시됐지만 2021년 ‘투자중개형 ISA’ 신규 도입되면서 증권가에서도 ISA를 주목하고 있다. /유투이미지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나는 해다.

그 결과 지난 2월 말 기준 ISA 가입자
수는 511만3000명, 가입금액은 25조
3604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ISA로 인한
자금 유입이 많은 상태다. 가입자 수는
2020년 말 대비 2.6배, 가입 금액은 3.9
배가량 증가했다. ISA가 하나의 계좌로

예금·적금·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세제 혜
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널리 알
려지면서 가입자가 많아진 것이다.

현행 ISA는 만 19세(근로소득에 따
라 만 15세) 이상 거주자라면 연간 2000
만원 납입한도로 최대 총 1억원까지 납

입할 수 있다. 발생수익에 대해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
며, 초과분부터는 저율과세(9.9%)를 받
을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ISA와 관련한 공약이
나온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ISA 혜
택 확대를 통해 국민 자산증식을 돕겠
다는 공약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
야 모두 큰 궤는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ISA에서 발생한 모
든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한도 없는 비
과세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
의힘은 ISA 비과세 확대를 공약으로 내
걸었다. ISA의 납입 한도를 연간 2000
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리고 이자·배
당 소득의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원
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용은 400만원
→1000만원)으로 높인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상생의 자본시
장을 위해 국민께 약속드린 금융투자소

득세 폐지, ISA 혜택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여소야대 국면이
됐지만 ISA 혜택 확대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ISA 보
유 고객들이 증권사 내 다른 투자 상품
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 증권사들이
ISA 고객을 끌기 위한 이벤트를 내놓
고 있고, 그만큼 자본 유입에 대한 기대
도 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증권사들의 ISA 고객 유치
경쟁 마케팅 열기가 뜨겁다. 한국투자증
권은 6월 말까지 뱅키스(BanKIS, 한국
투자증권 온라인 전용 계좌·거래 서비
스) 고객 대상으로 중개형 ISA 이벤트를
진행한다.

NH투자증권 나무증권은 ‘중개형 IS
A도 나무에서 시작!’ 이벤트를 통해 5월
31일까지 중개형 ISA를 최초 개설하는
모든 고객에게 NH멤버스 포인트 5000
점을 증정하고, 1000만원 이상 중개형 I
SA 순입금 고객 대상 선착순 1만명 대상
으로 연 5% 특판 RP(세전, 91일물) 가입
기회를 제공한다. /허정원 기자 zelkova@

반도체 훈풍에 연일 신고가 행진... ‘20만닉스’ 달성하나

metro 관심종목
SK하이닉스

일주일 사이 주가 2.51% 상승
목표가, 18.5만원 → 21만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훈풍의 영향
으로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
다. 증권사들도 SK하이닉스의 목표주
가를 올리면서 ‘장미빛 전망’에 힘을 실
어주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
닉스의 주가는 최근 일주일 사이 2.51%
상승했다. 특히 11일에는 종가 기준 18
만8400원이라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
록하면서 ‘20만닉스’ 기대감에 힘을 더
했다. 12일 장중에는 19만1400원까지

치솟았다.

SK하이닉스의 상승 랠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마지막 거래일 기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비중은 54.90%로 역대 최고치
로, 외국인은 올해 국내 증시에서 SK하
이닉스(1조9040억원)를 3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였다. 지난달부터 현재까지도
약 1조원을 사들이면서 삼성전자 다음
으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라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외국인 선호도 몰
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
면 연초부터 현재까지 SK하이닉스 실
적 전망 보고서를 내놓은 증권사들의 1
분기 시장 예상치는 매출 11조9751억
원, 영업이익 1조4741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35.35% 상승, 영업
이익은 흑자전환이 예상된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국 인디애나주에 패키징 공장 신축을
발표했는데, 2028년부터 해당 공장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
I) 메모리 제품을 양산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제반 여건상 HBM 경쟁사들도
엔비디아에 납품할 것으로 예상되지
만,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감안할 때
SK하이닉스의 1위 지위는 굳건할 것”
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에 지어지
는 HBM 패키징 공장은 미국 반도체법
에 따라 수조 원대 보조금 수혜가 기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목표가도 기존 18만5000
원에서 21만원으로 올려잡았다.

/신하은 기자 godhe@

삼성증권, 법인 실무자 위한 연금 아카데미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월 운영

삼성증권은 퇴직연금 법인 실무자를
위한 연금아카데미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성증권 연금 아카데미’는 HR·재
무 담당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법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운영
관련 계리·노무·세무·상품 교육을 진
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퇴직연금 실무
담당자 대상 집합교육으로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나눠 커리큘럼을 운영하
는데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월 운영할
예정이다.

첫번째 일정은 지난 11일 삼성증권
삼성터운금융센터 세미나실에서 실시
했다. 퇴직연금 실무자들 약 120명이 참
석하였고 교육 내용으로 ‘스마트한 퇴



삼성증권은 지난 11일 퇴직연금 법인 실무자를 위한 연금 아카데미를 실시했다. /삼성증권

직연금 가이드’를 나상현 세무사, 흥정
아 노무사가 각각 강의하고 ‘퇴직연금
운용전략’을 글로벌채권팀의 김은기 수
석이 강의했다.

조미옥 삼성증권 연금마케팅팀장은
“제도 운영의 막막함이나 어려움이 있
었다면, 이번 삼성증권 연금 아카데미
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거대야당 출현... 中企,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섌법 '복잡'

(중대재해처벌법)

중기중앙회 등 9곳, 소상공인 등 "50인 미만과 이상 사업장에 중처법 일괄적용, 평등권 침해" 현재에 법률 헌법소원심판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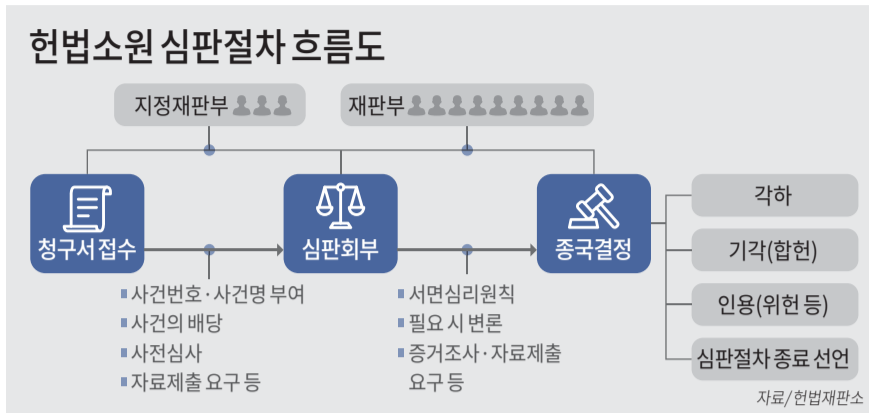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중소기업계가 22대 총선에서 거대 야당이 출현하면서 험로를 만나고 있다.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중심으로 한 경제계와 정부, 여권이 모처럼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 대목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다소 미온적인 모습이다.

14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9곳,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305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규정 명확화 ▲평등원칙에 기초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차등 적용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헌법소원 심판청구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중기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에 대해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극도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

다"면서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청구를 하면서 중처법 제3조는 본질적으로 다른 '50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아무런 차등을 두지 않고 일괄 적용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4조는 명확성 원칙, 의회유보 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직업수행의 자유)을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6조1항이 책임과 형

벌간 비례원칙과 평등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는 30일 이내에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수원, 광주,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총선 이후 열기로 계획한 바 있다.

하지만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서울 집회 개최 여부 놓고 고심중인 모습이다.

한편 경총은 앞서 경제단체 최초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 종합 대응센터'를 지난달 말 공식 발족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등 법률상담 ▲안전관리 매뉴얼·가이드 등 안전보건자료 제공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정 운영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추진 ▲컨설팅, 교육, 진단 등 정부 산재예방사업 연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 안전·보건·법률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단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코웨이 안마+리클라이닝 기능 비렉스 안마·척추베드

코웨이가 강력한 안마에 리클라이닝 기능을 탑재해 한 단계 더 진화한 침상형 안마기기 '코웨이 비렉스(BEREX) 리클라이닝 안마베드·척추베드' (사진)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14일 코웨이에 따르면 비렉스 리클라이닝 안마베드·척추베드는 일반 침상형 안마기기 가운데 국내 최초로 상체 리클라이닝 기능을 탑재해 편의성을 강화한 제품이다. 작년 11월 'CES 2024' 디지털 헬스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며 차별화된 안마기기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비렉스 리클라이닝 안마베드·척추베드는 높여주고 일으켜주는 자동 리클라이닝 기능이 새롭게 탑재돼 시작부터 끝까지 편안한 안마 경험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창업기업 성장 촉진... 특화역량 BI 43곳 선정

산학협력·산업특화·지역거점 유형 잠재 창업 DNA 발굴 프로그램 운영 선정 특화역량 BI에 1.5억~3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보육센터(BI)가 보유한 특성·역량을 바탕으로 초기 창업기업 1000개사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화역량 BI 43곳을 선정했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특화역량 BI는 3가지 유형(산학협력·산업특화·지역거점)으로 구분해 지원 기관별 강점에 따라 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자율 설계하는 것이다. 전국 257개 BI 중 경쟁력 있는 운영기관을 추렸다.



그간 보육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BI의 창업기업 보육 기능을 강화해 온 정부는 창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해 지난 12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개편했다.

선정된 곳은 산학협력 14곳, 산업특

화 6곳, 지역거점 5개 권역 23곳이다.

산학협력형 BI는 대학 내 창업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창업기업 기술애로를 해결하는 산학연결 멘토링, 과제 기획을 강화한다. 또한 교수·학생을 대상으로 잠재된 창업 DNA를 발굴하고 창업실행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산업특화형 BI는 지역주력산업 지원기관과 협력해 전문화 및 특성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문제해결을 돕는다. 대학·연구소의 전문인력과 창업기업 간 전담 코칭 및 특화산업 기관·기업간 협업을 통해 실증·투자유치·판로 개척 등 사업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거점형 BI는 지역BI 간 협업을 통한 공동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한다. 지역거점 인프라를 통해 스케일업이 가능한 지역주력산업 또는 특화분야 창업자를 발굴 및 육성하고 단계별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특화역량 BI는 1억5000만원~3억원을 지원 받아 창업기업 제품의 시장출시 전 애로과제 해결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특화역량 보유BI를 통해 창업보육 육성체계를 문제해결 중심으로 개편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 창업생태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창업기업의 성장축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마산제일고등학교 도서관에 시공된 KCC의 '마이톤 스카이' 천장재.

KCC 흡음 '마이톤 스카이' 도서관 등 영역 확장

KCC가 선보인 흡음 기능성 감성 천장재 '마이톤 스카이(Mitone Sky)'가 도서관, 카페 등에 시공되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14일 KCC에 따르면 최근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마산제일고등학교 도서관에 KCC의 '마이톤 스카이'를 시공했다. 경남 교육청의 공간혁신사업 일환으로 도서관에 차별화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마이톤 스카이가 선택을 받으면서다. 마이톤 스카이는 시공 방법에 따라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같은 와이어형, 층고가 낮은 천장에도 사용할 수 있는 프로파일형, 그리고 천장에 포인트 디자인을 줄 수 있는 세로형까지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마산제일고 도서관에는 와이어, 와이어 세로형, 프로파일형이 조화롭게 시공됐다.

도서관에 마이톤 스카이가 설치된 가장 큰 이유는 흡음 성능이다. 정숙성이 요구되는 도서관의 특성에 맞게 뛰어난 흡음 성능을 갖춘 마이톤 스카이를 설치해 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확산을 줄여 조용한 실내 공간이 조성되도록 했다. /김승호 기자

귀뚜라미, 4년연속 최대 매출... 2030년 '3조 클럽' 순항

작년 매출 1조6600억, 영업이익 1100억 "난방·냉방 사업 동반성장 주요"

보일러회사에서 종합냉난방에너지 그룹으로 탈바꿈한 귀뚜라미그룹이 '2030년 매출 3조원'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14일 귀뚜라미그룹에 따르면 귀뚜라미홀딩스를 포함한 그룹 전체적으로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조6600억원, 영업이익 1100억원을 각각 거뒀다.

귀뚜라미홀딩스만 놓고 보면 매출 1조2372억원, 영업이익 402억원을 기록하며 4년 연속으로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직전년도와 비교해 매출은 3%, 영업

이익은 14% 각각 성장한 수치다.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과 2021년 당시 각각 9352억원, 9733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뒤 이듬해 매출 1조원 벽을 넘어서는 등 4년째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귀뚜라미홀딩스는 2019년 11월 당시 '귀뚜라미'에서 간판을 바꿔달았다.

귀뚜라미홀딩스는 귀뚜라미그룹 내 주력 냉난방 공조 에너지 계열사인 ▲귀뚜라미 ▲귀뚜라미냉방 ▲신성엔지니어링 ▲센추리 ▲귀뚜라미에너지 등 19개 종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19개 계열사 가운데 귀뚜라미에너지, 귀뚜라미냉방, 신성엔지니어링을 비롯해 해외 법인인 귀뚜라미센

추리(천진)실업유한공사, 귀뚜라미USA, 귀뚜라미범양냉방 베트남 등은 지주사가 모두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귀뚜라미홀딩스 관계자는 "전반적인 국내외 경기 침체속에서도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간 것은 그룹내 난방·냉방 사업이 함께 성장한 것이 주효했다"면서 "성숙 사업으로 평가받던 가정용보일러는 프리미엄 친환경보일러 판매 비중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확대됐고, 업계 최초의 재난안전제품 인증 획득과 브랜드 파워 26년 1위라는 압도적 브랜드 인지도와 로열티가 매출 성장에 이바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냉방 사업을 담당하는 주력 계열사 3사 가운데 귀뚜라미범양냉방은 반도체, 바이오, 데이터센터용 냉동공조 장비가 매출을 견인했으며, 대규모 해외 건설이 진행 중인 화공플랜트, 발전플랜트, 전기차 배터리 공장 등에 냉방 제품 수출도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신성엔지니어링은 반도체 등 산업시설의 냉난방공조(HVAC) 시스템과 2차 전지 생산 공정의 초저습도를 구현하는 드라이룸 및 클린룸 시스템 공급을 중심으로 견고한 매출 실적을 올렸다.

센추리는 원자력 발전소와 조선 산업에 특화된 냉동공조 솔루션을 제공하며 지난해 국내 원전 개보수 현장과 해외 원전 수출이 늘어난 동시에 저온창고 영업 안정화로 매출 신장을 이뤘다. /김승호 기자

31개 사업장 체불임금 101억 적발... 16개사 즉시 사법처리

고용부, 임금체불 익명제보 결과 15일~3주간 후속 기획감독 실시
경영난 핑계 대학 18억 임금체불
파견근로자차별 등 위반사항 적발

임금 체불 피해가 있어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 제보를 받아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체불임금 101억원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청산 의지가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올해 1월~3월까지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작년 12월 11일~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 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과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체불액 51억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즉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의·상습 체불 사례를 보면, 모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대표가 구속되는 등 정상 사업수행이 불가능해 전·현직 근로자 총 54명의 임금 총 5억9000만원을 상습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었다.

모 스타트업 기업은 외부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8명의 임금 총 1억9000만원을 상습 체불했고, 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4일 오후 경기 성남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캠핑카 제조기업은 지난 2022년부터 임금체불이 빈발해 시정지시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후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지연하고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19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는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하는 등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공사비 대금 등 법정 소송에 따른 채권 압류 등으로 근로자 146명의 임금과 퇴직금 13억원을 체불하고 있다가,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전액 지급하기도 했다.

법령 무지, 계산 착오, 일시적 경영 악화 등 체불의 고의성이 없는 15개 기업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후 체불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모니터

링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근로, 합리적 이유 없이 파견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파견근로자차별,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등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기초노동 질서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15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체포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신중년 교직원훈련과정으로 경력개발 향상”

한기대, ‘신중년 교직원훈련과정’ 운영
40~70세 한 직종 7년 이상 경력자

“신중년 교직원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안 작성 정도에 머물던 제 역량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설계, 평가뿐 아니라 교육생 대상으로 열정적인 강의를 하는 수준까지 향상됐어요.”

인천에 소재한 다케어 평생교육원 김종필 원장(47세)의 말이다. 김 원장은 2년 전 한국기술교육대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신중년 교직원훈련과정’에 참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취득해 업무 역량 향상뿐 아니라, 교육사업도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동철 씨(43세)는 지난 2022년 특전사 9공수여단 작전팀에서 육군 특수전 학교로 이동한 후 직업능력 관련 교사 자격을 알아보다가 능력개발교육원의 신중년 교직원훈련 모집 공고를 보고 과감히 지원했다.

이 씨는 교육 수료 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 현재 특수교육처 해상과 선임 교관으로 일하며 군에서 배웠던 잠수기능사 과정평

가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선임 강사로 맹활약하고 있다. 이 씨는 “능력개발교육원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부대에서 습득한 기술적인 역량을 한층 강화, 강사 역할까지 할 수 있어 매우 보람된다”고 말했다.

‘신중년 교직원훈련과정’은 한기대 능력개발교육원이 지난 2019년부터 고숙련 기술자의 경력개발 향상을 위해 신설했다. 40대 이후 신중년 세대가 직업훈련사 자격을 얻도록 지원하는 ‘특화교육’이다. 대상은 만 40~70세 미만, 한 직종 7년 이상 경력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명장, 기능한국인, 국가기술자격 기술사 및 기능장 소지자는 우선 선발한다. 개인 경력에 따라 2급 또는 3급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준다.

교육과정은 기초능력, 교양, 교직 등 총 13개 교과목이다. 온라인 90시간과 오프라인 110시간 등 총 200시간의 교육으로 편성돼 있다. 온라인 교육은 6주간 진행되며, 오프라인 교육은 서울(현대건설기술교육원)과 천안(능력개발교육원) 2곳에서 진행된다. 평일만 3주, 주말만 8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교육비는 고용부 지원으로 전액 무료다.

/세종=한용수 기자



정부청사 내 농식품부. /메트로

농림축산식품부 식물서 추출물 이용 동물용백신 제조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식물백신 품질고도화 지원 사업’의 대상기업 7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린바이오 기술을 적용한 동물용의약품의 품질고도화 및 사업화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식물에서 추출한 항원단백질로 동물용백신을 만드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처음 시행 중인 ‘식물백신 품질고도화 지원 사업’은 사업시행주체인 (재)포항테크노파크에서 사업공고 후 민간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동물용의약품 개발 필요성, 성장 가능성, 산업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기업은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 등 제품 상용화에 대해 기업별 맞춤형으로 지원받게 된다.

/김연세 기자

‘대리점 갑질’ 한샘 등 3개사 공정위, 위반행위 시정명령

한샘·퍼시스, 미지급판매장려금적발
에넥스, 목표 미달성시 매출 패널티 부과

한샘과 퍼시스, 에넥스 등 가구 3개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갑질을 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고,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 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판매장려금은 한샘의 경우 총 78개 대리점에 2억6609만원, 퍼시스는 총 25개 대리점에 4300여만원 규모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음에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런 행위가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이익 제공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록 판매장려금 미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규정돼 있었으나 거래조건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된 점, 물품대금 미지급과 판매장려금 미지급 간 상호 연관성이 없다는 점,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샘은 대리점에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했고, 에넥스는 대리점에 분기별 판매 목표를 강제하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 총 3억9000여만원의 매출 패널티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판매금액 정보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임에도 한샘이 이를 요구한 행위는 대리점법 경영활동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고, 에넥스가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에 위반되는 판매목표 강제행위로 판단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폴리텍대, 15개 계열 교수 100명 채용

2024년도 하반기 임용 교수 초빙

한국폴리텍대학이 사상 처음으로 세 자릿수 교수 초빙에 나선다. 폴리텍대는 14일 ‘2024년도 하반기 임용 교수 초빙’을 통해 반도체 등 15개 계열 교수 100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퇴직 예정 교원과 학과 신설·개편에 따른 수요를 반영했다. 폴리텍대에 따르면 오는 8월 말 32명, 내년 2월 말 39명의 교원이 퇴직한다.

이번 채용에서는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을 아우르는 다양한 산업군의 교원 수급이 이뤄진다.

인력 양성이 시급하고 중요한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48명을 채용한다. 또 디지털 융합과 기술 혁신 등 변화에 발맞춰 전통산업 학과 고도화를 이끌 교원 52명도 선발한다.

고등교육법과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교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고, 3년 이상 현장 실무경력을 갖춰야만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직무능력 중심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서류와 역량 심사, 면접을 거쳐 산업체와 교육·연구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원서접수는 이달 17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정오까지다. 임용은 8월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환경부, ‘글로벌 탑 우수 환경기술대상’ 공모

모집기간 이달 15일~내달 17일까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14일 ‘2024 글로벌 탑 우수 환경기술대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을 통해 환경기술 발전과 환경산업 성장에 기여한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 성과를 확산을 도모한다. 관련 기술을 보유한 개인 및 단체 대상이며, 모집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다.

올해 최초로 실시하는 환경기술대상 공모는 경제·사회적으로 우수한 성과

를 도출한 ‘글로벌 탑 혁신기술’ 부문과 우수한 성과가 기대되는 ‘글로벌 탑 유망기술’ 부문으로 구분된다. 자세한 공모계획과 제출서류 등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국민투표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8개 기술에 대해 오는 9월 부산에서 열리는 ‘2024 국제 환경에너지산업전’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ION SUPPLY DRINK

POCARI SWEAT

 **동아오츠카**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안전에 유의하세요

고흥군, '새꿈도시 조성' 가속화... 인허가 행정절차 선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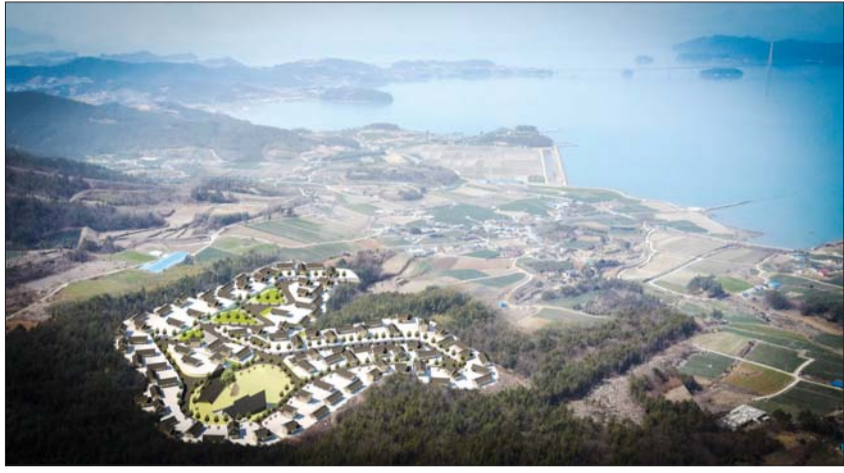
현지설명회서 26명 가계약 성과
뿔 요양원 방문해 복지사업 접목
착공시점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전남도로부터 지정받은 '금산 석정지구 새꿈도시 조성사업' 추진 속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산 석정지구 새꿈도시 조성사업'(이하 '새꿈도시(독일마을))은 고흥군 금산면 석정리 산 124번지 등 6필지 63,318㎡(2만 평) 부지에 100세대 규모의 전원주택과 커뮤니티시설, 파독 근로자 전시관, 노인복지시설 등 복합주거단지를 갖춘 마을 조성사업이다.

이번 쿨링, 프랑크푸르트 등 4개 도시 설명회에 공영민 군수, 이재학군의 회 의장, 김광남 추진위원회장 등 민·관 합동(10여 명) 현지 방문 파독 근로자, 간호사 등 대상 당초 200명의 계획보다 50%가 늘어난 300명이 넘는 참여와 관심 속에 사업내용, 입주 상담 등을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새꿈도시(독일마을) 조성사업추진



금산 석정지구 새꿈도시(독일마을) 조성사업 조감도

/고흥군

에 민·관 합동 현지 설명으로 그동안 타 지역 독일마을 조성사업의 아쉬움과 달리 고흥군의 독일마을 조성 의지와 부지 先 확보, 토지이용 주택 개발 행위 즉시 가능, 공공시설(도로, 상수도 등) 지원 등 차별화된 믿음으로 현지 설명회에서 70여 명의 상담을 통해 26명(1차)의 가계약 성과를 거뒀다.

더불어, 올해 10월경 재독 교포의 고국 방문 시 새꿈도시(독일마을) 조성 현장 방문과 설명으로 입주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독일 프랑크푸르트 게리아

트룸 요양원을 방문해 시설구조, 요양원 입소자 관리, 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안내 견학과 설명을 듣고 이곳 복지시설 장점을 새꿈도시(독일마을)에 구상하고 있는 복지사업에 접목할 계획이다.

앞으로, 새꿈도시(독일마을) 100세대 조성 계획을 1단계(50세대)와 2단계(50세대)로 나누어 추진하고, 토지는 100평~200평 규모로 분양하며, 주택은 15평~30평 등으로 입주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특히, 1단계 추진 50세대는 독일식

과 한옥 주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2단계 추진 50세대 주택 구조는 현대식, 한옥, 독일식 등으로 입주자의 선택 폭을 넓혀 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새꿈도시(독일마을) 조성사업 택지 분양을 위한 재독 교포, 귀농·귀촌인, 도시권 은퇴자 등 입주 희망자와 이번 독일 현지 방문 희망자를 포함 46명이 넘는 1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고흥군은 관련법에 따른 사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사전재해영향평가, 산지전용허가, 토지개발 행위 등 인허가 행정절차를 먼저 추진해 새꿈도시(독일마을) 조성사업 착공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독일 현지 방문 설명회 기간에 '전남 고흥 독일마을 설명회'와 '고흥군 거금도에 독일마을 조성 민·관 합동 설명회 가져'라는 제목으로 유렵 교포신문 등 3개 언론사에 홍보돼 참석하지 못한 교포들에게도 사업추진 내용을 공유하는 관심을 보여 주기도 했다.

/고흥(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구미시

'불필요한 일 버리기' 조직 변화

구미시가 행정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불필요한 일 버리기(이하 '불.필.별.')

추진으로 조직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관행적·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업무를 원점 재검토 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내부 행정망 내 익명계시판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솔직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편 구미시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일 잘하는 조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업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구미 위키'와 직원 소통 플랫폼 '혁신 상상 놀이터'를 개설했다. /구미(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신안군

도초면 화도항서 '섬 간재미축제'

전남 신안군은 도초면 화도항 물양장에서 19일부터 21일까지 '제5회 섬 간재미축제'를 연다. 이번 행사는 '신안 100섬'의 수산물 홍보와 판매촉진, 지역민 화합의 장 마련을 목적으로 도초면 주민으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한다. 간재미는 신안지역에서 주낙을 이용해 잡으며 양식 가능 어종이 아니다.

간재미는 육질이 단단하며 손질할 때 물로 씻으면 살이 흐물거리면서 맛이 떨어진다. 막걸리로 세계 문질러 뒤야 육질을 연하게 만든 후 회무침으로 즐긴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순천시

'스페이스 브릿지' 랜드마크 부상

순천시(시장 노관규) '스페이스 브릿지'가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이 개장 7일만에 관람객 21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기존 꿈의다리를 리뉴얼한 '스페이스 브릿지'에 대한 호평이 줄을 잇고 있다.

기존에 설치됐던 강익중 작가의 '꿈의다리'는 컨테이너박스를 재활용한 작품으로,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누수, 탈각 등의 문제가 꾸준히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날로그적 형태로 존재하는 14만여 점의 작품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순천(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전남도

결혼이주여성 복지 강화

전남도가 다문화가구원 5만 시대를 맞아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대한 촘촘한 복지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전남도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차별 없는 성장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분야 26개 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도와 22개 시·군 가족센터는 ▲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양성교육과 운영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 ▲국적 취득비용 ▲맞춤형 취업 ▲통번역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경북도, 中·몽골 수출시장 개척

中·라오닝성과 우호도시 교류 체결 몽골서 친환경에너지 공급 등 협약

경북도는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중국 라오닝성과 몽골 울란바토르시를 찾는다.

이 지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K-푸드, 그린에너지, 바이오 등 경북의 강세 품목에 대한 수출활로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는 15일 중국 라오닝성을 방문해 리러청 라오닝성 성장과 양 지역 교류 강화를 위한 우호 도시 교류 협정을 체결한다.

협정서는 통상, 투자, 산업, 과학기술 등 경제·과학 분야의 협력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

경북도와 라오닝성은 지난해 10월

교류의향서를 체결하고 더욱 긴밀한 협력을 위해 양 지역 간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해 이번 이철우도지사의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어, 이 지사는 베이징을 거쳐 17~1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경북의 수출시장개척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먼저 17일 울란바토르시가 중점 추진하는 친환경에너지 공급과 그린도시 조성 및 양수발전소 사업에 경북도가 협조하고 먼저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18일에는 이 지사는 울란바토르 문화센터에서 대학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경북의 새마을운동과 산업 발전을 알리고 우수 유학생 유치에 나선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경주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집중

에너지 비용 절감·탄소중립 실현 올해 19억 예산으로 지원사업 추진

경주시가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집중한다.

올해 19억원 예산을 들여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지원(14억원) ▲취약계층에너지 복지사업(3억원) ▲복지시설 냉난방기 교체 및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1억원) ▲기업에너지 고효율 설비개선 지원사업(1억원)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 지원 사업은 단독주택, 복지회관·경로당에 자가 소비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

주택지원 사업(106곳)은 3kW 용량

태양광 설치시 가구당 총 설치비용은 596만원 정도이며, 자부담금은 178만원(30%) 정도 된다. 월 400kW 사용 가구 기준으로 년 간 60만원 정도 전기요금 절감된다.

건물지원 사업(31곳)은 지역 복지회관, 경로당, 향토뿌리 중소기업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건물 당 3kW 용량 태양광 설치기준 총 설치비는 600만원 정도이며, 중소기업에 한해 20% 자부담이 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조명기구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력 소비를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어 에너지 절약과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한 번에 달성할 수 있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해남군, 81명 청년창업형 후계농 선정

정착금·창업자금 등 연계 지원

해남군이 해남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육성에 발맞추고 나섰다.

해남군은 올해 81명의 청년창업형 후계농을 선정, 청년들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 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 동안 월 90~110만원의 영농정착금을 지급하고, 농지·시설을 매입·임차할 수 있는 5억원 한도 창업자금과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까지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 및 예정자가 대상자로, 오는 4월

말까지 2차 모집도 실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해남군은 청년농업인 단계별 맞춤형 사업지원 모델을 구축해 우수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규 청년농 유입 단계에서부터 기초교육과 컨설팅, 정착지원, 성장에 이르는 지원모델은 진입 유형과 단계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11개 사업에 41억6100만 원을 투입해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한 개별농가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하고, 청년 4-H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 사업 등 청년 초기창업과 영농기반 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경남형 스마트 공장, 지방비로 구축 지원

기업 DX 역량따라 유형별 맞춤 지원

경남도는 (재)경남테크노파크와 함께 올해부터 스마트공장 기초단계에 대해 지방비로 자체 지원하는 '경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정부의 '신(新)디지털 제조혁신 추진 전략'으로 올해부터 처음으로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해 지방비로 자체 지원한다.

기존 정부 주도의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디지털 전환(DX) 역량에 따라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한다. 경남도는 올해 ▲경남형 스마트공

장 ▲대중소 상생형 2개 유형의 기초 단계 자체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경남형 스마트공장'은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85개사에 기업당 최대 60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중소 상생형(삼성형)'은 삼성전 자취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기초단계 지원사업을 도내 30개사에 기업당 최대 60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중소 상생형(삼성형)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지원사업은 4월 말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제로슈거 열풍... 식품업계 “건강한 달달함에 흠뻑 빠졌슈”

작년 원당 수입량 전년비 14% ↓
대체당 에리스톨 수입 21% 늘어

대상 알룰로스 생산기반 구축
‘스위베로’ 론칭... 경쟁력 강화

삼양사 개발 알룰로스 FDA 인증
‘넥스위트’로 해외진출 발판 마련



삼양사가 지난달 14~16일 미국 애너하임에서 열린 ‘2024 Natural Products Expo West(NPEW)’에 참가해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삼양사

건강한 식문화 열풍에 따라 제로슈거와 저당 제품이 떠오르면서 설탕 소비가 줄고 있다. 반면 대체당 소비가 늘고 있으며, 식품업계도 대체 감미료 시장 진출에 앞다투어 나서는 모습이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당(원당) 수입량은 157만9000톤으로 1년 전보다 13.9% 감소했다.

원당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 업체들이 호주와 태국에서 들여와 정제 과정을 거쳐 설탕으로 판매한다. 지난해 원당 국제 가격이 지속해서 오르면서 업체들이 설탕 생산을 줄였고, 아울러 대체 감미료 개발에 주력하면서 설탕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대체당 수입량은 늘었다. 대

표적인 감미료 중 하나인 에리스톨의 지난해 수입량은 1년 전보다 20.8% 증가한 5291톤을 기록했다. 또 다른 감미료인 수크랄로스의 수입량은 27.8% 늘어난 308톤으로 나타났다.

대체당은 제로 슈거 음료와 소주에 사용된다. 최근 2년간 설탕을 빼고 대체당을 첨가한 제품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식품업계는 커지는 대체당 시장에 주목해 직접 대체 감미료 생산에 나서고 있다.

종합식품기업 대상은 대체당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를 반영해 최고 수준의 알룰로스 생산 기반 구축에 이어 통합 브랜드까지 론칭하면서 소재 부문 경쟁력을 강화했다.

지난해 군산 전분당 공장에 국내 최대 규모의 알룰로스 생산기반을 구축하며 본격 생산에 돌입한 것. 현재 롯데칠성, 동아오츠카, 하이트진로음료 등 국내 유수의 음료 제조사들을 비롯한 50곳 이상의 거래처와 북미 지역 고객사를 다수 확보하는 등 일찌감치 글로벌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현재 생산 중인 알룰로

스를 시작으로 향후 출시할 대체당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 ‘스위베로(Sweetvero)’를 론칭했다.

‘스위베로’ 브랜드를 통해 국내 외 글로벌 저칼로리 대체당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먼저 글로벌 최대 시장인 북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동남아 신시장과 더불어 유럽 노벨푸드(Novel food) 등록을 통해 유럽 시장 또한 개척할 계획이다. 향후 대상의 대표 식품 브랜드 청정원을 통해 알룰로스 기업·소비자간거래(B2C) 사업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삼양사도 대체당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양사는 2016년 자체 개발한 효소 기술로 알룰로스 양산에 성공했으며 2020년부터 본격 생산했다. 같은 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안전원료인증(GRAS)을 획득했다. 이듬해에는 ‘넥스위트(Nexweet)’라는 브랜드를 론칭해 해외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그리고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천연제품박람회에 참가해 회사 대표 소재 알룰로스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알리는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부스에서는 각 소재가

사용된 단백질 바와 젤리 등 시식 샘플과 소재별 특징이 담긴 브로슈어를 제공해 방문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삼양사는 올해 해외에서 열리는 식품 관련 전시회에 적극 참가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오는 5월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식품소재 박람회 ‘IFIA 2024’, 7월 미국에서 열리는 식품소재전시회 ‘IFT 2024’ 등에 참가한다.

일각에서는 CJ제일제당이 대체당 시장에 참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CJ제일제당이 특허청에 ‘백설 베리스위트’ 상표를 출원했기 때문이다. 지정 상품으로는 대용설탕(천연제품), 스테비오사이드(스테비아), 요리용설탕대용물, 천연감미료 등을 등록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말에도 ‘백설 제로스위트’란 상표를 출원한 바 있다. CJ제일제당 측은 이에 대해 상표 출원은 용어 선점 차원일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업계 관계자는 “헬시 플레저 등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며 대체당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식품업계의 경쟁은 향후 더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CJ제일제당, 호주서 비비고 김치 2종 생산

‘갓 담근 김치’ 현지 니즈 반영
기존 수출김치 10종도 리뉴얼



CJ제일제당 호주 현지 생산 김치(왼쪽), 북미 현지 생산 김치.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이 비비고 김치의 글로벌 공급 역량을 강화하며 ‘K푸드 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

CJ제일제당은 호주 현지에서 생산한 ‘비비고 썰은 배추김치’ 2종을 처음으로 선보이고, 기존 한국에서 호주로 수출하는 김치도 리뉴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현지 생산 김치는 갓 담근 김치에 대한 호주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이다. 그동안 호주에서는 한국에서 수출된 김치만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번 제품 출시로 현지 원재료로 생산된 호주산 김치를 즐길 수 있게 됐다. 호주산 김치는 400g, 900g 2종으로 출시돼 현지 에스닉 마켓(Ethnic market)에 입점했다.

기존 수출 김치 제품 10종도 리뉴얼했다. CJ제일제당은 김치의 신선함을 최대한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발효 기술력으로 식감을 살

리고 최적의 숙성도를 구현해냈다. 리뉴얼된 제품은 지난 2월 현지 에스닉 마켓에 입점했으며 이 달부터 현지 대표 메인스트림 채널인 울워스(Woolworths) 일부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차유진 CJ제일제당 오세아니아법인장은 “비비고 김치 세계화의 일환으로 오세아니아에서도 현지 생산을 시작하게 됐다”며 “비비고 브랜드를 앞세워 한국 식문화 전파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와 더불어 북미에서도 현지 생산 김치를 선보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북미 시장에서 판매를 늘리기 위해 현지 김치 제조업체를 인수하며 자체 생산 역량을 갖췄다.

비비고 김치는 지난해 북미 시장에서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여 메인스트림 채널까지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김치를 미국, 일본, 베트남, 유럽, 호주 등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 수출하며 김치 세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비비고 김치의 글로벌 매출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으며, 일본 31%, 유럽 25% 등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임희정 CJ제일제당 김치 담당은 “비비고 김치의 인기 요인으로는 특히 받은 유산균과 연신한 재료를 활용해 특유의 아삭한 식감과 맛을 살린 것을 꼽을 수 있다”며 “고수 김치, 100%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비건 김치 등 각 국가별 소비자의 니즈를 분석해 다양한 현지화 제품군을 확보해 나간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현대백-日 파르코, K패션·엔터 업무협약

K콘텐츠 글로벌 진출 발판 마련

현대백화점이 일본 도쿄를 시작으로 한국 토종 패션 브랜드와 엔터테인먼트 등 K콘텐츠의 글로벌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현대백화점은 일본 대형 유통 그룹 파르코(PARCO)와 K패션 및 엔터테인먼트 브랜드 단독 팝업스토어 운영에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지난 9일 일본 도쿄 파르코 본사에서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과 카와세 켄지 파르코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잠재력과 성장성이 큰 패션 등 K콘텐츠가 일본은 물론,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가는 데 현대백화점이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현대백화점은 일본 도쿄 최고의 ‘MZ 쇼핑몰’로 꼽히는 파르코 시부야점에서 다음달 10일부터 7월 말까지 2개월 여간 노이즈, 이미



지난 9일 일본 도쿄 파르코 본사에서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왼쪽)과 카와세 켄지 파르코 사장이 한국 패션 브랜드 및 콘텐츠 팝업스토어 운영에 협의하는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현대백화점

스, 마뎡킴, 미스치프 등 11개 한국 패션 브랜드에 대한 단독 팝업스토어를 총 660㎡(약 200평) 규모로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기존에 국내 유통업체가 해외에서 다수의 한국 브랜드를 한 공간에 모아 소개하는 일회성 편집숍 형태의 팝업스토어를 여는 시도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현지 리테일과 손잡고 11개 개별 브랜드의 단독 팝업스토어를 장기간에 걸쳐 차례대로 운영하는 건 현대백화점이 최초다. /최빛나 기자 vitna@

오비맥주 ‘한맥’ 팝업에 2.5만명 방문

10일간 ‘엑스트라 크리미 쇼’ 체험공간

오비맥주 한맥이 여의도IFC몰에서 운영한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쇼(생)’ 팝업 스토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오비맥주는 한맥 팝업 스토어를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여의도IFC몰에서 운영했으며, 해당 공간에는 약 2만 5000명 이상이 방문하며 큰 관심을 모

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팝업 스토어는 한맥과 함께하면 ‘일상 속 가장 부드러운 순간’을 즐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신규 캠페인 ‘As Smooth As Possible’의 일환으로, 최근 업그레이드 출시된 생맥주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쇼’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됐다.

팝업 현장에는 한맥 생맥주가 차오르

는 듯한 모습을 생생하게 구현한 ‘대형 생맥주 조형물’이 거품의 부드러움을 몰입하여 느껴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스페셜 마이크로 크림 탭’을 통해 생맥주를 전용잔에 따르면 밀도 높은 거품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한맥만의 ‘100초 환상 거품 리추얼’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존은 방문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팝업 스토어에 다녀간 방문객들은 SNS상에서 ‘신기하게 거품이 계속 차오른다’, ‘진짜 생크림 같은 거품이 정말 맛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원선 기자

신세계, 성수동서 ‘메모파리’ 팝업 열어

내달 3일까지 ‘메모 그랜드 호텔’

신세계가 성수동 한복판에 니치향수 호텔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하는 프랑스 니치향수 브랜드 메모파리(MEMO PARIS)는 다음달 3일까지 프렌치 호텔 컨셉트의 팝업 스토어 ‘메모 그랜드 호텔’을 선보인다.

화려하고 감각적인 바로크 양식의 호텔을 연상시키는 이번 팝업 스토어는 메모파리의 신제품 카파도키아 오드 퍼퓸을 비롯해 한정판 향수 4종은 물론 이국적인 장소로 상상의 여행을 떠나는 듯한 설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팝업 기간 동안 전 품목 10% 할인 혜택과 가격대별 증정품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했다. /최빛나 기자

다이소, 작년 연매출 3조 돌파... '뷰티 상품' 성장세 견인

2022년 대비 화장품 매출 160% ↑
에이블씨앤씨 등 협업제품 쏟아져
“뷰티 부문, 新성장동력 자리매김”

균일가 생활용품 전문점 아성다이소가 지난 2023년 처음으로 연매출 3조원을 넘긴 가운데, 관련 업계는 다이소가 다양한 뷰티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이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지난 2023년 매출은 3조4605억원, 영업이익은 261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대비 각각 17.5%, 9.4% 증가한 규모다.

다이소는 실적 성장세를 꾸준히 지속해 왔다. 다이소는 앞서 2015년 연매출 1조원을 달성하고 2019년에는 2조원을 돌파했다. 이후 다이소 연간 매출은 2021년 2조6000억, 2022년 2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뷰티' 부문이 다이



어퓨 '더퓨어 티트리'

소의 새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분석이 따른다. 다이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8월 기준 다이소의 기초 및 색조 화장품 매출은 2022년 대비 약 160% 성장했다.

다이소는 지난 2022년 4월 네이처 리퍼블릭과 협업해 '식물원'을 출시하며 뷰티 시장에 진출했다. 특히 다이소가 지난 2023년 10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브이티코스메틱의 앰플 '리들샷'은

초도 물량이 2주 만에 완판되는 등 다이소 대표 제품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최근에는 에이블씨앤씨의 화장품 브랜드 '어퓨'와 협업해 선보인 '더퓨어 티트리'가 다이소 뷰티 흥행의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어퓨는 지난 2023년 7월 출시한 '더퓨어 티트리' 제품군의 누적 판매량이 출시 8개월만에 33만 개를 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어퓨 '더퓨어 캔디'

/에이블씨앤씨

'더퓨어 티트리' 제품군은 토너 패드, 에센스, 스팟 세럼, 수딩 젤 크림 등 8종으로 구성됐다. 모두 티트리잎 추출물과 베타글리세롤을 핵심 성분으로 해 사춘기 피부 고민을 가진 1020세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더퓨어 티트리 '스팟 세럼'의 경우 지난 3월 일시 품절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다이소는 색조 화장품도

적극 강화하고 있다.

어퓨는 지난 3일 다이소와의 두 번째 협업 제품으로 '더퓨어 캔디' 제품군을 출시했다. 어퓨는 틴트, 컬러밤, 워터치 크롬 3종으로 메이크업 제품 수요 공략에 나섰다. 무엇보다 모두 균일가 3000원이 적용돼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다는 '가성비 전략'으로 판매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별화장품의 화장품 브랜드 '입큰앤드'도 최근 다이소에서 쿠션, 블러셔, 파우더 등 11종의 상품을 추가로 선보였다. 입큰앤드는 지난 2023년 5월 프라이머, 베이스, 블러팩트 등을 기본 메이크업 제품군을 한 차례 출시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다이소의 가격 정책에 다양한 뷰티 브랜드들의 차별화된 전략이 더해져 시너지를 내고 있는 추세"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다이소 브랜드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청하 기자 mllee236@metroseoul.co.kr

“6조 건기식 시장 잡아라”... 유통업계, 제품 다각화 ‘구슬땀’

홍삼 등 다양한 기능성 원료 활용
신제품 출시·해외시장 개척 활발

유통업계가 '기능성 원료'를 중심으로 한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제품 다각화에 주력하고 있다.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다양한 기능성 원료를 앞세워 급격한 성장 추세인 6조원 규모 건기식 시장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라엘은 여성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라엘 밸런스에서 여성 질 건강을 위한 유산균을 선보였다.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는 식품 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질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원료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를 주성분으로 한다. 라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인체적용시험에서 질염의 판단 기준인 누젠트 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효과를 입증했다. 또 질 내 유익균은 증가하고 질 분비물 및 소양감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

/라엘

났다는 것이 라엘 측의 설명이다.

라엘은 여성 질 건강과 함께 요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요로건강 크랜베리'도 출시했다. 이 제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요로건강 도움 기능성을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원료 '프라켄 크랜베리 분말'이 담겼다.

아울러 라엘의 '월경케어 보라지유'는 월경으로 인해 부족해질 수 있는 영

향 성분 6종을 포함한다. 보라지유에서 추출한 감마리놀렌산 성분이 월경 전 여성들이 겪는 불편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아모레퍼시픽의 이너뷰티 브랜드 바이탈뷰티는 병의원 전용 건강기능식품을 내놨다. 바이탈뷰티는 올해 2월부터 소아과, 피부과 등에서 '우먼밸런스'와 '신바이오틱스'를 단독 판매하고 있다.

바이탈뷰티의 '우먼밸런스'는 감마리놀렌산, 히알루론산, 비타민D, 비타민E, 비타민B6 등을 주원료로 한다. 특히 비타민D가 일일 섭취량의 500%나 함유됐다. 이와 관련 아모레퍼시픽은 비타민D를 단품으로 섭취하던 여성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한다.

바이탈뷰티의 유산균 제품인 '신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주원료로 넣어 유익균을 제공함과 동시에 유익균 증식에도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두 가지 원료 모두 식약처가 인정하는 기능성 함량을 충족하고 있다.

한편, 일동제약그룹의 건강기능식품 전문 회사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자사의 기능성 원료를 수출해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 기능성 포스트바이오틱스 'RHT3201'을 태국 식품의약품에 식품 원료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에 따르면 'RHT3201'은 유산균의 일종인 '락티카제이 바실러스 람노서스 IDCC 3201'을 사균체 형태로 가공한 포스트바이오틱스다. 피부 면역과 관련한 기능성 제품의 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태국 현지 업체들을 상대로 한 원료 사업을 비롯해 제조업자 개발생산(ODM) 방식의 완제품 공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동아제약

판피린, 감기약 'K-BPI' 1위

동아제약의 감기약 브랜드 판피린이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판피린이 '2024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감기약 부문 1위에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동아제약에 따르면 판피린은 특정 브랜드를 인식하거나 회상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브랜드 인지도'에서 ▲최초 인지 ▲비 보조 인지 ▲보조 인지 등 세부 지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특정 브랜드에 대한 호감 및 애착 정도를 나타내는 '브랜드 충성도'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올해 63주년을 맞이한 판피린은 현재 약국용 액상 제형의 판피린큐와 편의점용 알약 제형의 판피린티 2가지 제품으로 구성됐다.

/이청하 기자



신라면세점이 바오 패밀리 굿즈를 단독으로 선보인다.

/호텔신라

한미약품, mRNA 치료제 등 8개 신약 연구결과 공개

美 암연구학회 학술대회 참가
이중 항체 등 새로운 접근방식 제시

한미약품이 신약 연구개발에 공격적으로 역량을 쏟고 있다.

1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현지 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 암연구학회 연례 학술대회'에 참가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 가장 많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학회에서 한미약품은 8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10건의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한미약품은 mRNA 치료제, 선택적 저해제, 이중 항체 등 암치료

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우선 한미약품은 'mRNA 플랫폼 기술'을 응용해 암 유발 돌연변이를 표적하는 기전을 규명하고 있다.

mRNA 기반 치료제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은 'p53-mRNA 항암 신약'과 'KRAS mRNA 항암 백신'의 약물로의 개발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은 '표적 항암제'로 ▲EZH1/2 이중 저해제 'HM97662' ▲선택적 HER2 엑손20 삽입 변이 저해제 ▲IRE1α RNase 저해제 'HM100168' ▲YAP/TAZ-TEAD 저해제

등을 소개했다.

특히 '선택적 HER2 엑손20 삽입 변이 저해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한미약품의 차세대 항암 파이프라인이다. 한미약품은 이를 방광암, 비소세포 폐암 등의 치료제로 개발할 계획이다. 'HM100168'도 신규 항암 파이프라인으로 다양한 유방암 세포주에서 경쟁약물 대비 우수한 세포 성장 억제 효능을 보였다.

아울러 한미약품은 '면역 항암제' 영역에서는 'HM16390', 'BH3120' 등 한미약품만의 독자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HM16390'은 한미 '랩스커버리'를

적용한 면역조절 항암 혁신신약이다. 한미가 개발한 '랩스커버리'는 바이오 의약품의 반감기를 늘려 약효 지속성을 개선하는 플랫폼 기술이다.

또 한미약품과 북경한미약품이 공동 개발 중인 'BH3120'에는 '헨탐바디'가 적용됐다. '헨탐바디'는 하나의 항체가 서로 다른 표적에 동시 결합하는 이중 항체 플랫폼 기술이다. 이에 따라 'BH3120'은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면역 항암치료와 암세포포만 공격하는 표적 항암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미약품은 이러한 연구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와도 융합해 영향력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신라면세점

'바오 패밀리' 굿즈 선봬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신라면세점이 여행의 계절 봄을 맞아 고객 혜택 강화에 나선다.

신라인터넷면세점은 이용 고객들을 위해 ▲신라면세점 단독 '바오 패밀리' 굿즈 판매 ▲'데코르테'의 오타니 선수 사인 핸드 타올 증정 ▲'시호'의 나의 앰플 찾기 서비스 등 참여 이벤트를 확대했다.

이번 바오 패밀리 굿즈는 ▲사이즈별 인형 ▲패브릭 포스터 ▲염서 세트 ▲배지 등 17종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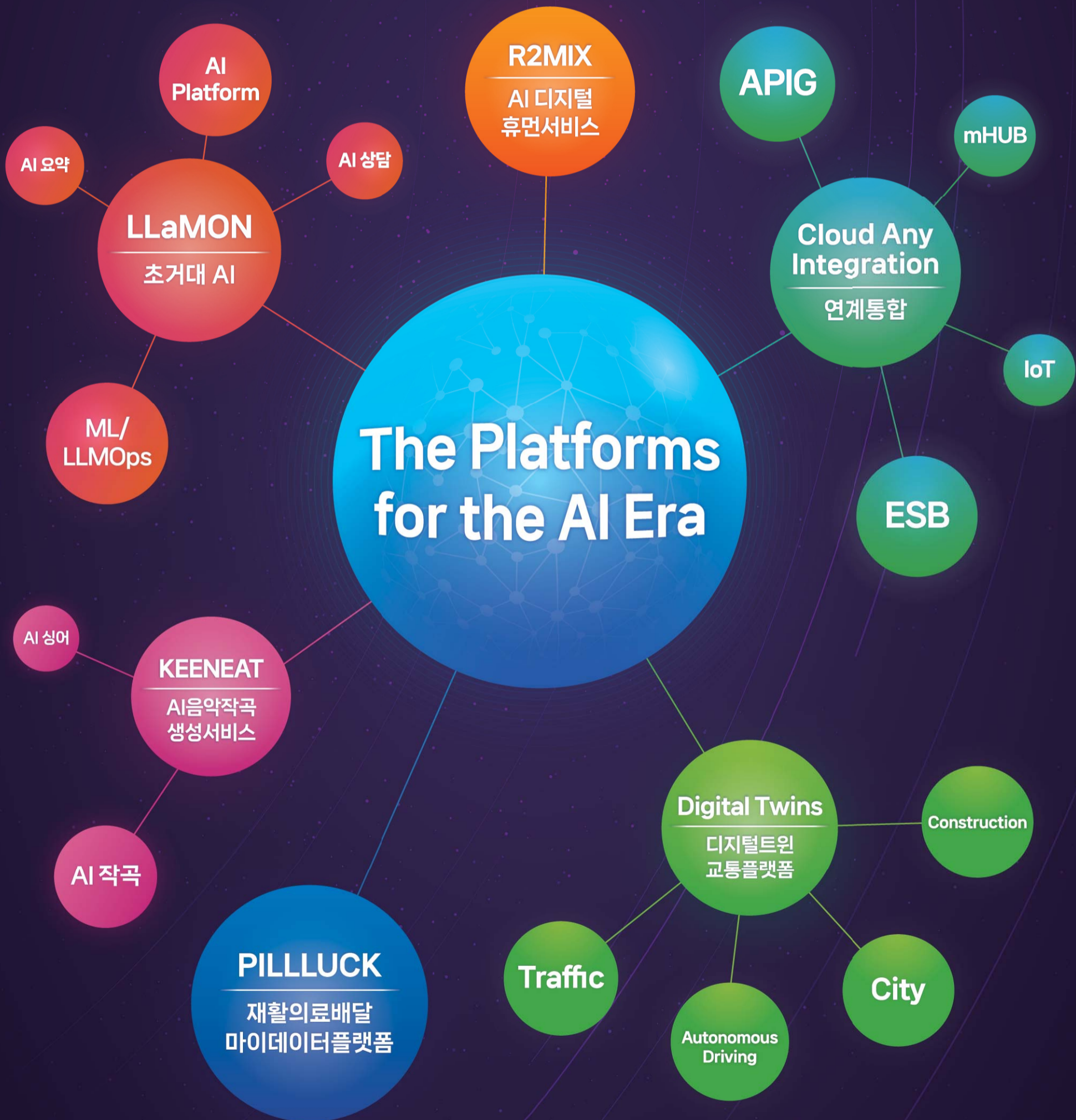
/신원선 기자 tree6834@



AI · 데이터 플랫폼 혁신 기업

Platforms for the AI Era

연계·통합 미들웨어 시장점유율 1등 기업에서
AI·데이터·디지털휴먼, 디지털트윈 교통·자동차·시티·건설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





HMM, 영종도 거점포해변 환경정화 활동

HMM이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반려해변인 영종도 거점포해변에서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반려해변 정화활동에는 올해 입사한 HMM 신입사원을 비롯해 임직원, 해양경찰, 덕교어촌계원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봉사자들이 해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있다. /HMM



유한양행, 다문화 아동 위한 동화책 낭독 봉사

유한양행은 지난 9일 동화책 낭독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위한 것으로 유한양행 임직원들이 오디오 북을 제작해 기부하는 활동이다. 오디오 북은 음성도서 청취용 디지털 기기과 함께 서울 동작구 소재 가족센터에 전달될 예정이다. /유한양행



세종대, 학교 밖 실습수업 등 예비 예술인 육성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는 최근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와 예비 예술인 발굴 및 예비 지도자 양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종대는 화곡보건경영고의 예비 예술인 발굴 및 육성과 학교 밖 실습수업을 위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세종대



서울사이버대, 세티스대학교 등 국제협력 추진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멕시코 세티스대학교(CETYS University)와 중국 SIAS 대학교와 지난 11일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의 연구 및 교육과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에 진행됐다. (앞줄 왼쪽 세번째)이은주 서울사이버대 총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부음

- ▲서영일씨 별세, 서경아·서현아·서선아씨 부친상, 장진모(교보생명 전무)·정지원(팔고나인 대표)·오근철(우리디엔티 부장)씨 장인상=1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7호실(15일 특실 2호 변경), 발인 16일 5시20분, 장지 경북 경산 선영, 02-2257-7590
- ▲안인선씨 별세, 이의상·은자·민상(미래정책개발원장)씨 모친상, 김승억(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사무국장)씨 장모상, 이경진(동아일보 기자)·한술(강원대학교 교수)씨 조모상 = 14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장례식장 201호 특실, 발인 16일 오전 7시15분, 031-411-4441
- ▲박현기씨 별세, 박진국(아이티센그룹 부회장, 前 LGC NS 전무)씨 부친상=14일, 서울성모장례장 14호실, 발인 16일

현대차그룹, EV 렌터카 ‘PnC’ 적용... 충전 편의성 높인다

(플러그 앤 차지 테크놀로지)

제주 렌트 고객 차별화 경험 제공 E-pit 충전 비용 지원 이벤트도

현대자동차그룹이 향상된 전기차 충전 편의성을 알리기 위해 EV 렌터카에 ‘플러그 앤 차지 테크놀로지(이하 PnC)’ 기술을 적용한다. 현대차그룹은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제주도에 위치한 롯데렌터카에서 운영하는 현대차·기아·제네시스 전기차에 PnC를 적용해 EV 충전 편의성을 높인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같은 기간 해당 차량을 단기 렌트하는 고객에게 E-pit 초고속 충전 비용을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제주도 최초의 E-pit 충전소 ‘새빌 E-pit’

PnC는 충전 케이블을 꽂기만 하면 회원 인증부터 충전과 결제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도 소재 롯데렌터카에서 운영하는 PnC 적용 전기차는 ▲현대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 ▲기아 EV6, EV9, 니로 EV ▲제네시스 GV60, G80 전동화 모델, GV70 전동화 모델 9종이다. 대상 차량을 단기 렌트한 고객이

제주도 E-pit 충전소 내 260킬로와트(kW)급 충전기에서 초고속충전을 할 경우 차량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충전 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고객은 충전기 화면의 ‘PnC 충전’ 버튼을 선택해 별도 인증 및 결제 과정 없이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제주도에 ▲새빌 E-pit(제주시 애월읍) ▲하구 하나 로마트 E-pit(제주시 애월읍) ▲동쪽송당 E-pit(제주시 구좌읍) 3개소에서 E-pit 충전기 16기를 운영중이고, 현재 국내에서 운영하는 286기의 E-pit 충전기를 2025년 500기까지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GI서울보증, 사회복지모금회 기부금 10억 전달

아동·청소년 의료비 등 사용 이명순 대표 “상생경영 힘쓸 것”

SGI서울보증은 지난 11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24년 연간 기부금 10억원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기부금은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의료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 지원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후원사업에 연중 사용된다. 각 지역본부 또한 소재지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꾸준히 후원하면서 자체 사회공헌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지난 11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의 전당에서 열린 ‘2024년 SGI서울보증 사회공헌 기부금 전달식’에서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이사(왼쪽 두 번째)와 김재록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왼쪽 세 번째)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GI서울보증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SGI서울보증은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실천하며 미래세대 및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상생을 지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상생경영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서울시, 17일 ‘동행서울 누리축제’ 개최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 마련

서울시는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달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고 14일 밝혔다. ‘2024 동행서울 누리축제’는 오는 17일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된다. 축제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최신 IT 기술을 엿볼 수 있다. 서울배경을 접자로 인쇄한 점자형압인서, 자재스펙트럼 장애인 등을 위한 뇌파 안정용 브레인 트레이닝 제품이 소개된



다. 이 자리에서 시는 장애인 이종사할수 있는 직업을 안내하고, 시각 장애인 조향사가 진행하는 ‘감정테라피 향수클래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축제에서는 ‘누구나 벤치’가 공개된다. 성별·나이·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됐다. 벤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2개 연속 설치 시에도 자연스럽게 조화가 되는 형태이다. 시는 올 상반기 중 공원, 대학교, 복지시설 등에 누구나 벤치 30여개를 마련할 예정이다.

4월 28일~5월 6일 꿈의숲 아트센터 드림갤러리에서는 발달장애인 청년작가의 작품 전시회인 ‘내 마음 속의 풍경 : The Scenery in My Eyes’와 함께 도장 찍기, 펀버튼 제작 등의 체험 행사가 운영된다.

이외에도 발달장애인 AI케어 다큐멘터리 홍보, 장애 인식 개선 토크 콘서트, 전환기 발달장애인 현장 중심 직업훈련 ‘서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hjk10@

한국거래소 ‘KRX 퓨처스타’ 모집

한국거래소는 부산지역 금융인재를 육성하고자 부산의 대학생 파생상품스터디그룹인 ‘2024년 KRX 퓨처스타’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퓨처스타(FutureStar)는 미래, 파생상품의 선물을 뜻하는 ‘Future’와 ‘Star’를 합성한 스터디그룹의 명칭으로 대학생들이 미래 파생상품시장의 빛나는 별이 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약 6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서류는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이후 서류심사, 면접 등을 거쳐 5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거래소는 “향후에도 퓨처스타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금융중심지 부산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덕성여대, 삼육대, 서경대, 대전대가 4일 삼육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해외취업연수사업 대학연합과정 운영기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덕성여대

덕성여대 해외취업연수사업 고도화

덕성여자대학교는 4일 삼육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삼육대, 대전대, 서경대와 해외취업연수사업 대학연합과정 운영기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해외취업연수사업 대학연합과정 운영기관으로 연속 선정됨에 따라 대학간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합 연수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덕성여대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취 학생들이 현지에서 적응·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ihj@

한일시멘트, ‘격주 주4일제’ 도입

충북 단양공장 우선 적용

한일시멘트가 시멘트업계 최초로 이달부터 격주로 ‘주4일제’를 도입했다. 이번에 도입한 격주 주4일제는 시멘트 생산 공장인 충북 단양공장에 우선 적용한다. 2주간 근무 일수 10일 중 8일 동안 1시간씩 더 근무하

고 격주로 금요일에 쉬는 방식이다. 단, 생산직 근로자들은 교대 근무 형태가 유지된다.

한일시멘트는 격주 주4일제 시행으로 직원들의 효율적인 자기계발과 휴식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 접근성을 직장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는 MZ세대 신입사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주말과 휴

일을 충분히 활용해 워라벨을 확보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향후 공장 내 거주 및 생활 인프라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일시멘트 전근직 사장은 “제조업에서도 지속가능 기업을 위한 원동력은 조직문화”라며 “다양성이 존중되고 능력을 인정받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제9회
베지노믹스페어
vegan & green Festa

www.veganfesta.com

**서울비건 &
 그린페스타**

**IT'S A
 GOOD
 LIFE!**

식품&음료 | 패션&뷰티 | 생활용품
 푸드테크 | 대체 소재&친환경 기술

**2024.5.31(금)~6.2(일)
 SETEC 전관**

주최  서울특별시  (주) 베지노믹스페어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법으로 보호될까



박 상 오 변호사
콘텐츠 법률 산책

대중에게 친숙한 저작물인 영화, 드라마, 소설, 웹툰 등과 달리 실용적·기능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실무에서 해당 대상의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특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저작물성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돼 소개한다.

해당 사안은 골프장 코스 설계업을 영위하는 A사가 스크린골프 사업 등을 영위하는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 A사는 “자신이 설계한 도면에 따라 만들어진 골프코스의 영상을 활용해 B사가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제작한 행위는 자신의 저작권(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그리고 1심(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사의 골프코스 설계도면을 ‘건축저작물’로 인정하면서 A사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각 골프코스에 따라 조성된 골프장의 호수 등도 위더해저드라는 기능적 구성요소일 뿐으로 기능적 요소를 제외하면 그 형태, 배치, 조합에서 미적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에 해당 도면에 포함돼 있는 기능 또는 기술적 사상, 즉 아이디어와 분리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거나 그 기능적 요소 외에 창작성 있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면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3나2003078 판결).

항소심의 판단은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에는 골프코스 설계의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 즉, 이 사건 각 골프코스에서 클럽하우스, 진입도로, 연습장 등 시설물과 개별 홀들의 배치와 함께 개별 홀에서 티잉그라운드, 페어웨이, 러프, 벙커, 워터해저드, 그린 등의 형태, 배치, 조합에 관한 사상이 표현돼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면서도, “기능적 저작물에 있

어서 저작권법은 그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성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즉, 서울고등법원은 위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창작성’을 부정한 것으로, 위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다른 골프코스 설계도면들의 경우에도 창작성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판결은 A사 등이 상고를 준비 중이므로 최종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저작권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대법원이 골프장을 무단 촬영한 후 그 사진 등을 토대로 3D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해 위 골프코스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입체적 이미지의 영상을 제작한 다음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타인 성과 무단사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이 역시 함께 참고할 만한 판례라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한국만 거꾸로 가는 재생에너지



김 현 정
차 현 정 (산업부)

고등학생 시절 열정적으로 학업에 임하며 성적이 좋은 친구가 있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찌감치 취업의 선에 뛰어들어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걱정을 자주 털어놓곤 했다.

다행히 국가 장학금 제도 덕분에 친구는 무사히 대학 진학을 할 수 있었다. 물론 모든 학자금을 충당하기는 어려웠다.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이 노력할 수 있는 선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었으며 지금은 취업도 성공했다.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적절한 뒷받침이 없다면 그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렵

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업계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국가적인 제도와 지원이 없다면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세계적인 흐름임에도 한국만 유독 뒤쳐진다는 평가가 따른다.

CDP(Carbon Disclosure Project)가 지난 3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데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국가로 드러났다. 한국 내 RE100 가입사 중 약 40%가 한국 내에서 RE100을 달성하는 과정에 장애물이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가장 큰 장애물로는 선택권 부족과 높은 가격, 제한적인 공급량이 꼽혔다.

심지어 같은 기업이라도 해외 사업장에서는 손쉽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RE100 기업들

의 경우, 지난 2023년 국내 사업장에서 조달한 재생에너지의 양은 5094GWh인 반면 해외 사업장에서는 이의 2배 수준인 1만2573GWh를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걸고 신규 원전 설비 확충 및 재생에너지 속도 조절에 나선 바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영향이 커지면서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금이나마 커진 모양새다.

자국 내 재생에너지 지원이 원활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점점 엄격해지는 국제 사회의 탄소 감축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더 많은 노력과 지원이 투입되길 바란다. /hyeon@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4월 15일 (음 3월 7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투기성을 가진 돈의 유혹을 조심. 48년생 조상의 직업을 내 자식이 승계하니 경사이다. 60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모처럼 편안. 72년생 남의 일에 감 뇌라 배 뇌라 하지 않으니 조용. 84년생 도벽이 있는 이웃사촌을 조심.



37년생 자선이 없으니 나이 드는 것이 서글프다. 49년생 태양은 그 자리에 있으니 아직 반전이 남아 있다. 61년생 아이디어가 생긴다. 73년생 승산이 없는 일에 계란으로 바위 치기이다. 85년생 사주불여관상 관상불여 심상이라 했다.



38년생 훌륭한 자녀와 직원이 있어 안락. 50년생 소금장사 나가는 데 비가 내리는 격이니 조심. 62년생 평소보다 급할수록 돌아서 가라. 74년생 가는 사람 붙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했다. 86년생 모든 것은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



39년생 지출이 많으니 절약 정신으로. 51년생 가족 간이라도 독불장군은 외롭기 마련. 63년생 지나친 사랑이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한다. 75년생 오후 5시 고속도로 운전 거칠지 않게. 87년생 팔자를 본다든 것은 미신이 아니라 안심임이다.



40년생 문제 해결을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52년생 살찌는 것이 걱정되면 덜 먹도록. 64년생 젊은 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운명이 개선되었다. 76년생 잘못을 뒤집어쓸 수 있으니 물건정리를 잘해야. 88년생 모호한 태도는 글세.



41년생 관성이 출을 맞으니 다들 일이 생길라. 53년생 무서운 병중에 도박도 있음이니 도박조심. 65년생 집안을 정리하고 준비를 하면 복이 온다. 77년생 운세가 호전되니 직장에 충실해지자. 89년생 돈은 좀 더 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다.



42년생 바람피우는 습관이 아직 남아 있던 말인가. 54년생 베푼 덕은 빠르면 자신의 대에서 운을 향한다. 66년생 금전 운이 따르는 하루. 78년생 셀러리맨은 상사의 도움이 있다. 90년생 착한 일을 계속해서인지 인덕으로 복을 누린다.



43년생 할 일은 하되 자식일에 간섭 마라. 55년생 불기운이 아직 남아있으니 매실나무를 심어본다. 67년생 창업은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변과 상의를. 79년생 공짜를 좋아하면 재물에 흥액이 끼게 마련이다. 91년생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다.



44년생 종로에서 친구를 만나 영화를 보기로 한다. 56년생 분수를 알면 투자를 하지 않게 되니. 68년생 동업자와 의견이 합이 되어 매출이 늘다. 80년생 사소한 인연이라도 뒤에서 험담하지 않도록. 92년생 과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인가.



45년생 문서운이 오지만 눈앞의 성과는 아니다. 57년생 쌓아온 물건중 버릴 것은 버리는 것이. 69년생 주가가 변하니 식구와 인연도 결별 되어 고인. 81년생 인생사는 반 복되는 수식체계. 93년생 이성을 만날 때 공짜나 망명된 생각이 실이 된다.



46년생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풀어야 할 터. 58년생 자식에게 지나친 기대는 하지 말아야 내가 편하다. 70년생 외로움보다 참기 힘든 건 그리움이라 했다. 82년생 역경을 극복하고 길하게 반등. 94년생 감정으로 창업하면 후회가능하다.



47년생 때늦은 정치는 실현되지 못한 정의다. 59년생 잔뜩 짜푸린 마음에 자식의 진급이 웃음을 준다. 71년생 봉사고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으니. 83년생 믿을 것도 실력이다. 95년생 젊음을 지나치게 믿고 약한 상대를 밀어붙이지 말 것.



김상회의四季

무서운 병, 도박

얼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창 잘 나가는 야구선수의 통역 매니저가 도박에 빠져 야구선수의 적지 않은 돈을 도박금으로 탕진했다는 기사가 났다. 그는 축구 등 여러 스포츠에 대한 도박을 해왔는데 우리 돈으로 약 60억 원쯤 되니 돈의 액수도 액수지만 믿고 지냈던 절친과 다름없는 지인으로부터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마음의 상처도 적지 않다. 도박은 바람피우는 습보다도 나쁘고 더 무섭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도박에 빠지면 마누라도 팔아먹는다고 하지 않던가?

도박이라고 하면 화투나 카드 카지노에서 하는 게임 등을 우선 떠올리지만 권투나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서 승자를 맞춘다든지 하는 확률을 놓고 판돈을 거는 것도 도박이라고 할 수 있다. 투기 권이나 투기 닭의 승부에 판돈을 거는 것도 있다. 이익을 목적으로 상습적이며 사행성이 높은 중독적인 행위들이다. 어느 나라든지 사행성 경마나 도박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칙으로 하지만 법적으로 공인되고 허락되는 놀이문화로서 건전하게 육성하기도 한다. 막는다고 막히지 않는 인간의 욕구를 아는 까닭이다.

대부분 사행성 사업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장한다. 대표적인 것이 카지노나 경마이며 로또와 같은 복권사업이 그러하다. 지금은 제도적으로 증권시장이 많이 정비되었지만 한때 시골 농부들이 소 팔고 땅을 팔아 주식에 투자했다가 졸딱 망하여 목숨을 끊는 일도 종종 있었다.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워낙 확률이 낮으므로 취미와 오락의 단계를 뛰어넘어 재물의 탕진은 물론 가정이 풍비박산 나기도 한다. 사주명리학에서 바람을 의미하는 관성(官星)이 충(衝)이나 파(破)를 받아 흔들려 있는데 재살財煞까지 들어와 있거나 십이운기十二運氣법에서 목욕沐浴운기가 오면 필시 사행성 도박에 심취하게 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4시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4		6	7					2
	3	9		5	6			4
			1					9
	1					3		4
	7							5
5	3							6
9	8				7			
	4		6	2		7	1	
7					1	6		5

6	3					9		7	5	
9				7					4	
			1			9	5	8		
1		6							4	
		7						6		
	4							9		1
			3	9	4		5			
7						6				3
3	5		6					9	8	

5	8	9	1	6	7	8	2	3	4
8	1	2	6	7	9	5	7	4	6
9	2	7	2	8	9	1	8	6	6
1	9	8	7	2	2	8	6	9	9
6	9	2	8	9	8	7	2	1	1
7	2	8	9	8	6	2	1	9	9
8	6	9	2	1	1	9	8		
2	7	1	9	9	8	6	8	2	2
2	8	6	8	1	2	9	5	7	7

8	6	1	2	2	9	7	9	8	9
8	2	7	9	9	8	6	1	2	2
2	1	9	8	7	6	8	9	2	2
1	9	6	1	8	6	2	7	9	9
2	9	7	7	1	2	1	6	8	8
6	7	2	8	2	9	9	8	1	1
9	8	9	6	2	1	2	1	7	7
7	8	8	1	9	2	9	2	6	6
9	2	2	6	1	7	8	8	9	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1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1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태양광 단지 조성·노숙자 현금지원... 세계도시, 이색 정책 실험

파리, 공공장소 광고판 제거 예정
늦은 저녁~새벽 시간대 거리 소등
시카고시, 공공전력 재생에너지 전환

‘공공장소 광고 제한, 태양광 단지 조성, 노숙자 현금 지원 효과 분석...’ 세계 주요 도시들이 이색적인 정책 실험을 통해 사회 혁신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14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는 오는 2026년까지 공공장소에 설치된 광고판을 제거할 예정이다. 소비주의의 산물인 상업광고가 기후변화를 악화시킨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된 정책이다.

현재 파리의 공공거리에는 약 5800개의 광고판과 광고 기둥이 설치돼 있으며, 4x3 광고판과 디지털 스크린은 이미 설치가 제한된 상태이다. 서울연구원은 “파리는 무조건 광고를 없애는 게 아닌, 광고를 더 책임감 있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또 약 8억 1000만유로(한화 약 1조 1939억원)의 광고 수익을 포기하는 데 따른 대안도 필



프랑스 파리 국회의사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AP 통신·뉴시스

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파리는 늦은 저녁과 새벽 시간대(밤 11시45분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거리 광고 조명 소등을 의무화했다. 대중교통 서비스 시간에 따라 오후 11시45분부터는 지하철역, RER 파리 교외선역, 기차역과 버스 정류장 조명판의 불도 꺼야 한다. 파리 수도권 교통공사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벌금을 물거나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

시는 공공거리 상업광고 제거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기 위해 주민 투표를 실

시할 예정이다. 키오스크나 버스 정류장의 기존 광고는 그대로 두고, 역사적 기념물 등 문화유산 관련 대형 광고 배너, 민간 건설 현장 광고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하는 등 유지와 제거 대상 광고판의 종류를 선별하고 그 위치를 선정하는 내용의 투표이다.

서울연구원은 “거리의 수많은 간판으로 서울을 기억하는 외국인들을 보면 도시 디자인 측면에서 비교해 볼 만한 사례”라며 “이번 정책은 막대한 광고 수익을 포기하고 에너지 절약 등 환경 문

제에 집중하는 파리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시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내년까지 모든 공공시설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키로 했다. 태양광 단지 조성을 통해 친환경 도시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시카고시는 재생에너지 공급업체와 4억2000만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공급 계약 맺었다. 향후 5년간 태양광 발전 시설인 ‘더블 블랙 다이아몬드 태양 에너지 단지’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공급받기로 한 것이다.

서울연구원은 “시카고시의 대규모 태양광 설치 및 재생에너지 사용 방침은 파리, 도쿄 등 세계 유수 대도시의 에너지 전환 흐름과 일치한다”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안정적인 판매처를 제공함으로써 재생에너지 공급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노숙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의 효과를 검증해보는 연구 프로젝트가 시행됐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립대학 연구진

은 22개 노숙자 촌에서 100여명의 노숙자를 모집하고 무작위로 현금 지원을 받는 그룹 50명과 받지 않는 대조군 50명으로 나눠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진은 현금 지원 이후 3개월 주기로 지원 대상자들을 1년간 추적 관찰했다. 조사 결과 수혜자들은 대조군보다 안정적인 주거 공간에서 55일 더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혜자들은 술, 마약, 담배에 대한 지출을 평균 39% 줄였고, 대조군보다 저축도 많이 했다.

밴쿠버의 쉼터 체류에 드는 사회적 비용이 1박당 93달러(약 9만3000원)임을 고려하면, 쉼터에서의 숙박 일수를 줄임으로써 수혜자 1인당 8277달러(약 822만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 것이다.

서울연구원은 “노숙자들이 지원받은 현금을 술과 마약 등으로 탕진했을 거라는 보통의 선입견을 깨고 지원금 대부분을 생활비에 사용했음이 드러났다”면서 “현재 더딘 성과를 나타내는 주택 공급, 숙소 지원 등에 편중된 연방 및 도시 노숙자 정책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캠퍼스타운, 1000개 창업기업 육성

일자리 제공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전문가 멘토링 등 맞춤형 프로그램

서울시는 청년 창업의 디딤돌이 되는 ‘서울캠퍼스타운’에서 올해 1000개의 창업 기업을 육성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캠퍼스타운은 청년에게 창업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가 2017년부터 대학, 자치구와 협력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난 8년간 2286개의 초기 스타트업에 발굴해 지원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대 캠퍼스타운 창업기업 에니아이의 조리 로봇 ‘알파그릴’. /서울시

시는 창업기업에 입주 공간과 전문가 멘토링, 투자유치 역량 강화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 육성할 창업기업은 대학별로 개최하는 입주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시는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각 대학 및 캠퍼스타운 기업성장센터에서는 다양한 해외 투자처 발굴을 위한 글로벌 투자기관 연계 데모데이를 열고, 세계대전전시회(CES)와 같은 해외 박람회 참여를 지원해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알리겠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교육청, ‘세월호 10주기 추모’ 주간 운영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추모하며 ‘국민안전의 날’ 안전주간을 26일까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국민안전의 날’ 주간을 위해 관내 학교에 세월호 10주기 관련 계기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학교에서 4월 중 자율적으로 추모 주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 주간에 학생회 중심의 세월호 추모식, 추모 리본 달기, 추모 편지쓰기, ‘인권·안전·우리가 만들어 갈 더 나은 세상’을 주제로 한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한마당’ 등 다양한 추모행사를 실시하도록 각 학교에 안내했다. 시교육청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

로 두고 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 체험중심 안전교육 강화, 업무 담당자의 위기 대응능력 강화 등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 초등학교 통학로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 중 416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893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와의 대응투자를 통해 조치를 진행 중이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재난·안전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분야 전문교육을, 11일에는 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17일 개관하는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현진 기자 lhj@

마곡~잠실 한강 위로 잇는 리버버스 띄운다

서울시 선박 8대 건조 작업 시작
한번에 199명 탑승... 10월 이용

서울시는 한강에 도입되는 수상 대중교통 ‘한강 리버버스’ 선박 8대의 건조 작업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강 리버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독섬·잠실 총 7개 선착장을 오가는 수상 대중교통이다. 출퇴근 시간 15분 간격, 평일 하루 68회 운행하며 한번에 199명이 탈 수 있다. 요금은 3000원이며, 기후동행카드 6만

8000원권을 구매하면 무제한 탑승 가능하다.

한강 리버버스는 길이 35m, 폭 9.5m, 150t급 선박으로 제작된다. 선박 외관은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고 연료도 약 35% 절감할 수 있는 알루미늄 소재로 만든다. 디젤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8%가량 적은 전기-디젤 하이브리드도 탑재된다.

시는 리버버스 선착장 7개도 이달 중으로 모두 착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선착장 설계를 마치고

공사 발주에 들어갈 것”이라며 “주변 대중교통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 노선을 신설·조정하고 선착장 인근 보행로·자전거 도로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선박 건조는 물론, 선착장 조성, 접근성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해 시민들이 10월에 한강 리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57 | 해질 / 19:08

4월 15일 (월)
음력 : 3월 7일

수도권 날씨
17~19°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5/19, 동두천 15/19, 가평 13/18, 파주 14/19, 서울 17/19, 양평 15/19, 인천 17/18, 수원 17/18, 용인 17/18, 평택 16/2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獨·프랑스·캐나다,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 강력 비난
▲유엔 이란대표부 “이스라엘 공격 중료된 것으로 간주해도 될 것” /사진 뉴시스

▲ 이란, 유엔에 “안보리 침묵 유감... 갈등 추구 안해”
▲ 이스라엘 “국가안보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다 할 것”



▲ 바이든 “G7 소집해 이란 공격 대응”... 군사보복엔 부정적
▲ 최상목, 중동 정세불안에 “합동 비상 대응반 매일 가동” /사진 뉴시스



건강한 달달함에 '폭' 식품업계 제로슈거 열풍
L1



Life

다이소 작년 연매출 3조 돌파
L2



“국악과 AI의 만남... 풍요로운 삶 선물하는 음악 만들 것”



새벽을 여는 사람들

AI 국악 전문가 김명옥 연구원

“한국음악은 대부분 작곡가 없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우리네 삶에 더욱 밀접하게 존재해 왔다. 인공지능(AI)으로 음악을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되면 음악이 일상생활에 활용되는 범위는 더욱 넓어져, 인간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김명옥 고등과학원 초학제 프로그램 연구원(44)은 14일 인공지능(AI)으로 누구나 음악을 만들 수 있게 된 시기, 미래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악과 수학, 예술과 기술의 만남

김명옥 연구원이 AI로 국악을 작곡하기 시작한 것은 2022년 고등과학원 초학제 프로그램에서 국악 분야 연구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그는 “대다수가 음악은 감성의 영역이고, 수학은 이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AI와 음악, 특히 국악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실은 음의 높낮이나 박자 등에 수학적 원리가 포함돼 있다”며 “AI 국악을 작곡하며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곳에서 김 연구원은 정재훈 포항공과대학교 교수와 여러 수학자들이 연구한 새로운 AI 작곡 방법 연구에 참여했다.

일반 AI 연구에서 다량의 음악을 입력해 비슷한 음악을 작곡할 수 있었다면 하나의 음악을 점·집합·연결성·거리·근접성 등 위상수학적 기법으로 분석해 국악의 원리·특징을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등과학원 국악 연구원으로 활동 위상수학적 기법으로 AI 국악 작곡 국악 특유의 감정 담기 어려워 음악적 요소 '시김새' 활용 모색

그는 “국악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선율과 장단 등에서 복잡한 변화 과정을 거치는데, 기존 AI 작곡방식은 국악의 원리·특징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국악의 원리를 수학적으로 탐구하고, 이를 반영한 AI음악을 창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AI 국악, 감정 담을 수 있을까

다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존재한다. 아직까지 AI 작곡으로는 국악 특유의 감정을 담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다면 곡은 100개든 200개든 만들 수 있지만, 아직까진 악보에 감정이 나타나는 것 같진 않다”며 “구성을 달리해 감정을 표현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드라마에서 흥미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사건을 제시하는 플롯처럼 곡에도 흥미를 더할 수 있도록 구성마다 악기를 다르게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김새라는 음악적인 요소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국악의 경우 작곡가가 쓴 악보가 아니고 받아 적은 악보이다



- 1 밀도드리 Algorithm 2 Sequence 31 (밀도드리를 통해 알고리즘 2가 만들어낸 80곡 이상의 음악중 31번째 곡을 기반으로 작곡된 곡)을 연주하는 모습.
- 2 국악 명인들이 시가 만든 가야금산조를 연주하고 있다.
- 3 위상수학과 인공지능으로 우리음악 도드리를 시각화한 모습.

보니, 실제음악과 적혀 있는 악보 사이에 간극이 크다”며 “이런 부분을 시김새를 활용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김새는 농음·추성·퇴성과 같이 음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국악 특유의 표현방법이다.

청소년과 함께한 AI 작곡 기억 남아 판소리, 민요 등 삶에 도움 됐던 국악 정교한 AI 작곡 연구로 도움 주고파

김 연구원은 그럼에도 인간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많은 사람들은 AI가 다 해주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일까라는 의문이 있다”며 “AI가 출력하는 많은 악보들 중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 AI가 표현하지 못하는 다양한 감정을 인간이 악기로 담아낼 수 있는 것 또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삶에 도움이 되는 음악, 음악도구 제공”

김 연구원이 AI로 국악을 작곡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는 포항에서 열린 ‘포항 청소년 AI 풍류(風流): 포항인공지능국악작곡음악회’다. 포항 청소년 AI 풍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음악의 원리와 패턴을 찾아내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작곡한 뒤 명인들이 공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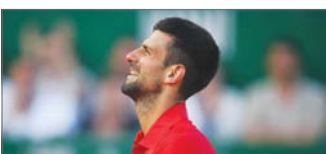
그는 “학생들이 짧은 시간안에 AI 작곡 기술을 배워 곡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감탄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공간과 시간, 비용 등에 제약 받지 않고 음악을 접하고 만들 수 있게 되면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김 연구원의 계획은 AI 작곡이 더 정교해질 수 있도록 연구해,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판소리, 정악, 산조, 민요 등 제 각각의 음악은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존재했다”며 “현시대를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나 음악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세계 1위’ 조코비치, 몬테카를로 마스터스 4강 탈락 /사진 뉴시스
▲김민재 또 결장...원헌은 켈른에 2-0 무실점 완승

▲황희찬, 2개월 만에 부상 복귀전...울버햄튼은 2-2 무승부
▲MLB 20승 투수 스펜서 스트라이더, 팔꿈치 수술 ‘시즌 아웃’



▲황선홍호, 끝내 배준호까지 합류 불발...울산 최강민 발탁
▲이정후, 탬파베이전서 2루타 광...5경기 연속 안타 /사진 뉴시스